



공군TV특집
68면 발행

2013년 9월호
VOL. 423

08 기획특집

On Air force
— 공군 텔레비전

30 인터뷰
야구아나운서 공서영

34 포토스케치 Red Flag Alaska
44 공군문화유산 답사기 대정초등학교 & 강병대교회

52 담벼락 독서
64 책마음 28

COVER STORY

On Air force – 공군 텔레비전

월간 「공군」의 9월호 기획은 On Air force, 공군 텔레비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군 장병들을 기존 TV 프로그램의 패러디 형태로 만나보는 구성입니다. 공군 '그것이 알고싶다'부터 다큐 5일, 스타킹, 기네스, 직장의 신까지. 가용한 지면을 모두 할애해 꾸몄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월간 「공군」에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MONTHLY MAGAZINE



공군TV특집
68면 발행



2013년 9월호
VOL. 423

08 기획특집

On Air force
— 공군 텔레비전

30 인터뷰
야구아나운서 공서영

34 포토스케치 Red Flag Alaska
44 공군문화유산 답사기 대정초등학교 & 강병대교회

52 담벼락 독서
64 책마음 28



08



12



34



44



56



표지(앞) 기획특집 '공군TV'를 이미지화한 일러스트 그림 | 이한아 프리랜서 작가
표지(커버스토리) 공군TV의 주요 프로그램을 파노라마처럼 소개하는 그림 그림 | 상병 조기봉
표지(뒤) 아나운서 공서영 사진 | 김재기 프리랜서 작가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통권 제423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성일환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권용은, 소령 천명녕
기획·편집 대위 김나영, 상병 조기봉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September 2013 Volume 423



• GLOBAL & INSIGHT

공군IN Fitness	06	차(茶) 한잔의 여유로 건강찾기
Zoom iN 캡틴쿠	07	산뜻하게 시즌을 출발한 구자철

： 공군IN

기획특집	08	공군 직장의 신 - 슈퍼 계약직 군무원 4인방
	12	공군 스타킹 - 세계적인 마술사 안하림 일병
	15	공군 그것이 알고싶다 - 비상활주로의 진실
	18	공군 식신로드 - 광주에 숨겨진 '공군의 맛'
	20	공군 슈퍼군가 A - 공군인이 선택한 인기군가 TOP 10
	22	공군 출발비디오여행- 9월의 공연/영화 추천
	24	공군 기네스 - 이름 기네스 시즌 2
	26	공군 다큐 5일 - Red Flag Alaska 참가
	30	공군초대석 - 야구아나운서 공서영
Photo Sketch	34	Red Flag Alaska 화보
포토프레임@AF	40	참모총장 동정
AIR FORCE MONTHLY	42	8월 공군 소식
공군문화유산 답사기	44	대정초등학교 & 강병대교회
Pioneers up Above	48	최자남
Air-Power Report	50	공중의 원샷원킬! 공대공 미사일
담벼락	52	독서
생각하는 그림	54	커다란 향아리에 먼저 담아야 할 것

：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56	몬스터 대학교
트렌드가 보인다	58	가을유행 패션 아이템

： OPINION

책마을	64	28
-----	----	----

※ 히든트랙, Air Supply는 쉽니다.



공군IN Fitness

차(茶) 한잔의 여유로 건강찾기

여름 내 소모된 체력을 **건강차**로 회복하자!!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차 한잔이 생각난다. 따뜻함과 여유를 선물해주는 차는 지난 여름내 땀과 함께 소모되었던 우리의 체력을 보충해 준다. 오늘은 몸을 보호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차를 소개한다.

모과차 - 모과는 각기병과 감기 등에 효과가 있어 약재로도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급체, 기관지염, 토사, 폐결핵 등에 효과가 있다. 모과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발라내어 얇게 썬 다음 하루 정도 말리고, 설탕이나 꿀에 재운다. 이렇게 만든 모과청은 최소 한 달 이상 숙성시켜야 제 맛을 볼 수 있으며, 간편하게 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말려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말린 모과와 대추, 생강을 넣고 푹 고아 국물을 따라서 먹는다. 피곤할 때는 피로회복제 대신 모과차 한잔을 권장한다.



유자차 - 유자는 향이 좋고, 신맛이 나는 과실로 껍질이 두꺼워 껍질도 차에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침이나 두통,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진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유자껍질을 가늘게 채썰어 1 대 1의 비율로 설탕이나 꿀과 섞어 유자청을 만들어 놓는다. 끓는 물 100cc 1잔에 유자청 작은술을 넣고 우려서 마신다. 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한다.

대추차 - 잘 말린 대추를 달여 물엿처럼 만들어 놓고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 방법은 냄비에 잘 말린 대추와 2배 가량의 물을 붓고 대추를 푹 곤다. 곤 대추를 면보나 거즈로 싸서 즙을 짜낸 뒤 다시 냄비에 부어 시럽 상태가 될 때까지 은근한 중간불로 달인다. 대추즙이

물엿과 비슷하게 진득한 상태가 되면 병에 담아 서늘한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수시로 먹는다. 대추차는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구기자차 - 구기자의 맛은 처음에는 달고 뒤에는 쓴맛을 낸다. 구기자에는 베타인, 베아크산틴, 카로틴, 티아민, 비타민A, B1, B2, C 등이 들어 있다. 구기자차를 만드는 법은 깨끗이 씻은 구기자를 끓는 물에 넣어 중간불에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달인다. 충분히 우려나면 고운 체에 걸러 따뜻하게 마신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마신다. 1800년 전 후한시대에 저술된 『신농본초경』에서는 구기와 인삼을 상약(上藥), 즉 무독한 것으로 적혀 있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근골을 단단하게 하며 몸이 가벼워져서 늙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는다고 소개되어 있다.

매실차 -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강차 중 하나이다. 매실은 칼슘, 인, 칼륨 등 무기질과 카로틴도 소량 들어 있다. 매실은 피로회복에 좋고,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다. 해독 작용과 살균 작용이 있어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장 작용이 뛰어나 설사, 변비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실 역시 매실청, 매실 효소 등으로 만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많이 섭취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매실의 물기를 제거한 후 꼭지를 제거한다. 깨끗이 씻은 병에 물기 제거한 매실과 설탕을 켜켜이 1 대 1 비율로 넣고, 4~5개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매실 농축액에 물을 혼합하여 차를 만든다. 따뜻하게 먹거나 차게 해도 좋다. **AF**



zoom in 캡틴쿠

공군홍보대사



Follow



무난한 개막전,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

볼프스부르크 구자철이 무난한 개막전을 치렀다. 구자철은 지난 8월 10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하노버와의 원정경기에 '디에구의 백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발 출장해 55분을 뛰었다. 팀은 졌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전반 2분 회심의 원발 슈트를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고, 이후에도 몇 차례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다. 구자철은 팀이 패한 상황에서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구자철의 선발 출장과 선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인츠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볼프스부르크에 남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디에구의 백업으로 팀에 남는 건 구자철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라운드에서 꾸준히 '내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다. 디터 헤킹 감독이 관심을 가졌던 바이에른뮌헨의 구스타부가 아스널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구자철의 팀 내 입지는 생각보다 탄탄해졌지만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백업'이 될 수 있다.

높아진 기대치 만큼 활발한 경기력이 필요한 시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마인츠의 투헬 감독이 더 애타게 구자철을 원하게 만든 한판이었다. 11일 마인츠는 슈투트가르트와 개막전을 치렀다. 마인츠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독일 청소년 대표 요하네스 가이스, 덴마크 대표 니키 짐링, 오스트리아 대표 율리안 바움가르트링거를 배치했다. 한 수 위 전력을 가진 슈투트가르트를 중원에서 압박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인츠 공격의 활로는 니콜라이 뮐러를 앞세운 측면이었다. 골은 넣지 못했지만 중앙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인 구자철이 더욱 탐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달 전만 해도 구자철에게는 여러 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볼프스부르크 잔류와 마인츠 이적 정도만 선택지에 남았다. 구자철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으며 잔류'하거나 '제값을 받고 이적'하기 위해서는 시즌 초반 활발한 경기력과 많은 공격 포인트가 필요하다. 최소한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를 1부 리그에 잔류시킬 때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1년이 지났고, 구자철에 대한 기대치는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AF**



글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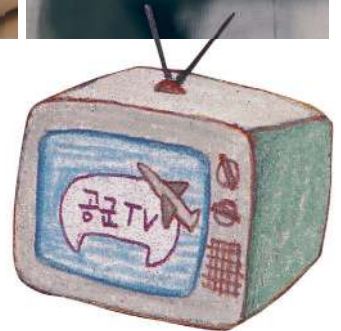


사진
상사 김경률
(공군본부
공보과)



직장의 신

공군 직장의 신(神) - ‘나는 프로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계약직 군무원 4인방

“나를 통해 발전되는 공군의 모습에 보람 느낍니다”

몇 달 전, 배우 김혜수씨가 주연한 ‘직장의 신(神)’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혜수씨는 극 중에서 계약직 회사원으로 분하는데요. 사회적 약자로 생각되는 계약직이지만, 일반인의 수준을 뛰어넘는 월등한 업무능력과 전문성으로 정규직보다 몇 곱절의 급여를 받는다는 줄거리의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과장된 설정이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계약직 군무원을 소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몇 달간의 구상이 드디어 지면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화된 분야에서 공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하시죠.



공군 중장기 기후예측의 기틀을 다진다 기상단 북한 전장 기후연구담당 김성 사무관

기상 외길, 박사과정 수료한 인재

공군기상단 기후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 사무관은 올해 나이 서른일곱이다. 공군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7월. 이제 갓 1년이 지났다. 김 사무관은 공군에서 일하기 전부터 기후 예측을 위한 역학모델과 통계모델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다.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친 인재다. 석사와 박사과정 중간에는 기상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기상/기후 관련 연구사업을 하는 민간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민간 회사에 다닐 때 공군기상단에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시점에 마침 채용공고가 나자 '나에게 꼭 맞는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해 공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공군의 중장기 기후예측 능력을 기상청 수준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김 사무관이 기상단에서 맡고 있는 일은 공군의 중장기 기후예측모델을 운영하는 업무다. 주로 월간, 계절 기상/기후 전망을 생산한다. 예측은 역학모델 결과와 최근 기후 현황, 기후 지수 분석, 유사해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김 사무관은 공군 중장기 기후예측 능력의 향상이 본인의 업무 목표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사실 단기예보는 기상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예보정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장기 예측은 기상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공군의 중장기 예측 분야를 단기예보 분야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제가 선발된 이유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공군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

기상청과 민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 사무관이기에 조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공군과 다른 조직들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관은 “회사는 아무래도 이익 창출을 위한 곳이라 많은 일과 경쟁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기상청은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가기관이라 그런지 군과 비슷한 위계질서가 확실한 전문직 조직으로 자신들만의 사명감이 투철하고요, 제가 있는 위치에서 공군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해주는 조직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면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사무관의 이야기처럼 매력적인 직장에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공군 장병과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진다 항공우주의료원 임상심리사 이숙희 주무관

공군사관생도를 동경했던 심리학 전문가

항의원 건강관리센터에 근무 중인 이숙희 주무관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이를 기초로 석사와 박사과정에서는 각각 발달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을 전공했다. 세부적인 분야는 달랐지만 심리학을 10여 년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이 주무관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1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2년을 근무했다. 대학 시절을 청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평소 공군사관생도와 공군에 대한 호감이 있었는데, 마침 항의원에서 임상심리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2011년 7월에 공군 가족이 됐다.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 주임무

이숙희 주무관이 소속된 항의원 건강관리센터는 조종사들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부서다. 조종사들은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항의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임상심리사인 이숙희 주무관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매일 약 10~15명의 조종사들을 만나며 그들이 건강한 심리상태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대상자를 포함한 정신과 의뢰 환자에 대한 심리검사, 공군 장병들에 대한 상담, 심리학 관련업무 지원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비행사고 때는 동료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

이 주무관은 정기적인 신체검사 이외에도 공군 내 심리학 필요 분야에 본인의 역량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비행사고 부대 심리안정 지원이다. 실제로 비행사고가 발생하면 이 주무관은 정신과 군의관 및 비행 간호장교와 함께 해당부대로 파견되어 사고 조종사 동료들과 가족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체크하고, 의학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 주무관은 이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 당혹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분들의 불편함 정도를 체크하고, 사고 직후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본인이 경험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적인 접근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담실에서는 어떤 일이?

이 주무관의 상담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공통점이 많다고 하며 주로 비행, 진로, 건강, 가족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물론 비행이라는 업무적 특성과 관련된 고민들 외에도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으나 이는 군 밖의 사회조직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항의원에 근무하며 조종사를 처음 접한 이 주무관은 조종사들의 생활이 정기적인 훈련과 평가, 비상대기 등으로 꽉 짜여진 것에 적잖이 놀랐다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조종사들이 자신의 역할에 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함을 강조하였다.

처음 겪은 군(軍)문화,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 주무관은 처음 겪은 군문화에 당황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 주로 본인의 업무 이외에 군에서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훈련이 어려웠다고. 일조행사부터 체력검정, 재난대비 훈련, 화생방 훈련 등 처음 접하는 경험들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했다. 특히 체력검정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해했다. 공군에 있는 동안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 주무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군내 유일 직위’ 자부심으로 일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운동처방사 윤철 주무관

프로 스포츠 선수 스포츠재활, 연예인 개인트레이닝을 담당했던 운동처방사

군내 유일한 ‘운동처방사’ 윤철 주무관은 공군에서 일하기 전 유명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의 스포츠재활과 개인 트레이닝을 담당했던 경력에 있는 국가공인 운동처방사이다. 스포츠 과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체력관리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NSCA(미국국립체력관리학회)의 공인개인트레이너, 공인체력단련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운동처방사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공군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능력을 공익에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보수보다는 일의 보람을 더 중요시 여기며 직장을 선택하였고 군내 유일의 운동처방사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처방이 주 임무

윤 주무관은 앞서 소개한 이숙희 주무관과 함께 항공의료원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된 임무는 조종사들에 대한 운동처방. 체력측정장비를 통해 유산소 능력, 근지구력, 근력, 민첩성, 순발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체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동들을 조언한다. 조종사들의 체력증진은 공군 전력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철 주무관의 사명감도 남다르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운동방법을 지도하기도 하고, 통증감소에 주로 사용되는 키네시오테이핑요법 처치를 해주기도 한다.

Special Theme

따뜻한 메일 덕분에 4년째 일할 수 있었다

공군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했던 윤 주무관에게 공군은 '따뜻한 직장'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기뻐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군에서 함께한 4년간의 시간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일선 전투 조종사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보람된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업무 동력은 '따뜻한 메일 한 통'이라고 한다. 본인의 처방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내주는 감사 메일에 다시 일할 힘을 얻는다고 한다. 사실 취재를 빌미로 필자의 골치덩어리 왼쪽 어깨에도 테이핑을 받아봤는데, 많은 통증 완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 다시 한 번 힘을 내시기를 바라며...

‘바르게 운동하는 공군’ 만들고 싶어요

윤 주무관의 목표는 '바르게 운동하는 공군'을 만드는 것. 더 많은 장병들이 올바른 운동법을 통해 건강해 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요청이 있을 시, 비행단을 순회하며 올바른 운동방법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공군지에도 기고를 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문성과 겸손함, 투철한 직업정신까지 갖춘 윤철 주무관에게 고개가 숙여졌다. 윤철 주무관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더운 여름철 무분별한 보양식 섭취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신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불꽃편집! 영상촬영·제작 전문가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박용범 주무관

‘나는 모험생이다’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용범 주무관(예명 : bum PD)은 공군에서 일하기 전 영상프리랜서로 활동했다. 고향인 광주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광주 MBC, KBC 광주방송, 광주영상 예술센터 등에서 영상기술지원과 프로그램 제작하는 스태프로 활약했다. '모험생이기보다 모험생이 되자'는 본인의 좌우명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공군에서 일하게 됐다.

블로그 공감 콘텐츠 제작과 스튜디오 관리가 주 임무

동영상 제작담당인 박 주무관은 미디어영상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공감'의 콘텐츠 제작과 공군본부 영상스튜디오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 방송 경력을 바탕으로 공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튜디오 녹화뿐만 아니라 Space Challenge 등 공군 주요 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를 주관하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공군 주요 동영상 소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박 주무관의 몫이다.

처음으로 전투기를 렌즈에 담았던 순간의 떨림을 기억하며

박 주무관은 처음으로 전투기를 촬영했던 순간의 떨림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시원하게 펼쳐진 활주로와 불꽃처럼 날아오르는 전투기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나 찍을 수 없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박 주무관은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운 공중촬영을 할 때마다 행복함을 느낀다"며 "제가 있음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공군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공군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일하는 살아있는 조직"

박 주무관은 공군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라는 점을 꼽았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도전해 가면서 많은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올 10월 결혼을 통해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한다. 본 기획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지지만, 박 주무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그의 피앙세에게 전하는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 할까 한다. "유진아! 사랑한다!"



공군 스타킹

눈 뜨고도 속는 카드 마술의 달인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프로 마술사 안하림 일병

마술사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이름이 떠오릅니다. 이은결, 최현우, 김유정국 등등. 지금 소개할 안하림 일병과 마술사는 조금 어색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공군인들의 마술사 리스트에는 안하림이라는 이름을 추가해야겠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명성이 높은 프로마술사, 계군단 군악대 안하림 일병을 공군 스타킹 코너에서 소개합니다.

Special Theme

정말 '해외 순회공연을 마치고' 입대한 안하림

안하림 일병은 올해 나이 29세로 뒤늦은 입대를 했다. 그동안 그는 뭘 한걸까?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대학을 포기한 안하림은 TV에 나오는 마술을 보고 흠뻑 빠져들게 된다. 취미로 배워볼 요량으로 등록한 마술학원에서 그는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전문적으로 마술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2007년까지는 국내 방송활동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했다. 하지만 당시 소속사와의 문제 때문에 국내 활동을 접고 국제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본인의 말로도 '지구를 다섯 바퀴는 족히 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월드 매직세미나 황금사자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

국제무대에 전념한 안하림은 2006년 이탈리아매직클럽컨벤션 매니플레이션 부문 우승을 시작으로 국제무대를 화려하게 휩쓸게 된다. 2007년에는 아시아월드매직세미나 UGM 대회 우승, 2008년에는 월드매직세미나 황금사자상 수상 등 전 세계 마술사들이 선망하는 대회들을 차례로 제패해 나갔다. 입대전

그는 본인의 마술 비법을 DVD로 제작해 현직 마술사들에게 판매했을 정도로 마술 실력이 정평이 나있다. 국내무대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을 뿐, 마술업계에서는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는 마술사다.



공군 군악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공연 임무에 최선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임무는 각종 마술공연이다. 위문공연처럼 규모가 큰 행사부터 격오지부대 지원과 같은 작은 규모까지 참가한다. 군악대 공연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마술을 통해 변화를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래 병사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군생활에 대한 신념도 확고하다. '군생활은 남자들에게 마음의 휴식기' 라는 것.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비록 일병이지만 자신감도 넘쳐보였다. 그것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프로다움에서 나오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공군에서 복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최고의 마술사가 되기를 기원한다.

해외 이민 요청 뿌리치고 국내무대 복귀 결심

해외 여러 나라에서 그를 스카웃하려고 했다. 이민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많았다. 하지만 안하림은 공군 입대와 국내무대 복귀를 선택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였다. 또한 병역을 마치고 뒤통나게 국내 마술계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몇 년 간 이어진 해외생활이 가져온 피로감도 한몫했다. 그는 그가 존경하는 마술사 '김유정국' 이 거쳐간 공군을 선택한 것에 항상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추석특집

모 가족이 모인 추석, 간단한 카드마술로 분위기 UP 시켜볼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안하림의 카드마술 비법 공개>

먼저 마술 공연을 볼까요?

안하림 마술사가 카드마술을 선보입니다. 함께 관람할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세 장의 에이스 카드

안하림 마술사 펼쳐든 세 장의 에이스 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몬드 에이스 카드가 보입니다.

클로버 에이스 카드를 뽑아라

보여진 카드를 다시 뒤집습니다. 안하림 마술사가 클로버 에이스 카드를 뽑아보라고 하는군요. 아까 카드 위치 기억하시죠? 바로 가운데 카드입니다. 자신감 있게 가운데 카드를 뽑았습니다.



테이블에 내려진 클로버 에이스, 이제 변신할 시간

저는 분명 클로버 에이스 카드를 뽑아 테이블에 내렸습니다. 물론 남은 카드는 하트와 다이아몬드 에이스여야 하겠죠? 이 사이 안하림 마술사가 마법의 기운을 불러넣는군요. 과연 카드는 바뀌었을까요?



클로버 에이스가 조커로 바뀌었다?

제가 뽑았던 클로버 에이스는 온데간데 없고 남은 카드는 조커가 남아 있습니다. 눈앞에서 코 베어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마술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원래 카드가 조커였다

자, 이제 원래 카드 세 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커 한 장, 다이아몬드 한 장, 그리고 마술에 사용된 트릭 카드 한 장이 보입니다. 에이스 하트 카드 위에 클로버 하트를 자연스럽게 대각으로 이어붙인 카드입니다. 이것이 간단히 만드는 카드 마술의 비법이었던 것이지요.



조커를 다이아몬드 에이스 밑에 자연스럽게 숨기면 마술의 완성

다시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 밑에 조커를 숨기고 트릭카드 위에 자연스럽게 얹어 놓습니다. 깜짝같이 조커가 숨겨졌죠?

뒤집으면서 자연스럽게 세 장으로 보여준다

마술의 마지막 비법입니다. 보여준 카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세 장으로 펼쳐주고, 클로버 에이스를 고르도록 합니다. 바로 그 카드가 아까 에이스 다이아몬드에 숨겼던 조커 카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마술로 가족간의 정을 나누는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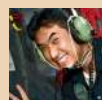
Special Theme

기획특집

배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사진
상사 김경률
(공군본부
공보과)



그것이 알고싶다

공군 그것이 알고싶다

비상활주로의 진실

※ 내용의 재미를 위해 도입부분에 실제 방송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했음을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 경북 영주의 폐쇄된 국도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군 수송기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쓰이지 않고 있던 도로에 비행기가 뜨고 내렸다는 사실에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2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영주의 한적한 국도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공군지 취재진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유사시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예비기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우리 취재진은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공군 파견대라고 밝힌 제보자는 비행이 있었던 장소를 비상활주로라고 알려왔습니다. 비상활주로, 비상활주로는 유사시 재출동을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와 분리하여 만들어 놓은 활주로와 그 부속시설을 의미합니다. 과연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활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식 분류는 '예비항공 작전기지', 공군은 5곳의 비상 활주로를 관리

지난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항공기지는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가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군 비행단은 전술항공작전기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비상활주로는 시행령의 분류상 예비항공작전기지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총 6곳으로 수원, 나주, 영주, 남지, 죽변, 목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군에서는 목포를 제외한 총 5곳의 비상활주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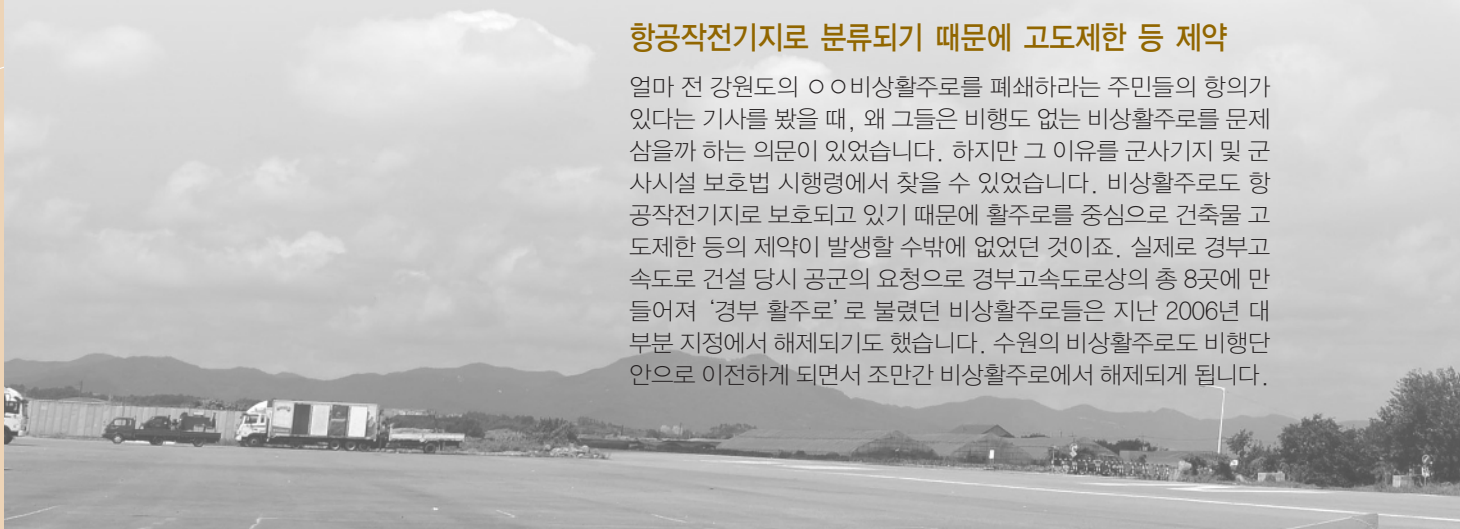


백령도 천연활주로도 항공작전기지로 분류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령도의 천연활주로는 비상활주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백령도 천연활주로는 예비항공작전기지가 아니라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예비항공작전기지의 중간 규모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원항공작전기지는 전국에 1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백령도 천연활주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군관제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령도 천연활주로는 이탈리아 나폴리와 함께 세계에서 단 2곳뿐인 천연 활주로로, 국가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91년까지 총 228회의 훈련 기록이 있었고, 하루 4시간 정도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도제한 등 제약

얼마 전 강원도의 ○○비상활주로를 폐쇄하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왜 그들은 비행도 없는 비상활주로를 문제 삼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상활주로도 항공작전기지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중심으로 건축물 고도제한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공군의 요청으로 경부고속도로상의 총 8곳에만 들어서 '경부 활주로'로 불렸던 비상활주로는 지난 2006년 대부분 지정에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의 비상활주로도 비행단 안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조만간 비상활주로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Special Theme

실제 활주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비상활주로

우리는 비상활주로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보기 위해 직접 나주 비상활주로로 향했습니다. 1전투비행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주 비상활주로에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파견대가 활주로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착해 만난 활주로는 비행단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바리케이드 때문이었습니다. 비상활주로는 폐쇄된 도로 이기는 하지만 주변 차량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단 진입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 시설이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급유 시설과 비상조명등 보유

비상활주로를 지켜보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바리케이드만 치운다고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을까. 이곳 파견대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취재진) 이착륙과 관련된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파견대장 중위 기민규) 먼저 저희 파견대는 조종사에게 정확한 활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주로 거리 표지판을 보유하고 있고, 야간 이착륙시 안전한 유도를 위한 비상조명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 비상급유를 할 수 있도록 급유대와 송유시설, 기종별 연료탱크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상당히 작은 규모의 부대인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파견대장 중위 기민규) 저희 파견대는 모기지인 1전투비행단에서 파견되는 인원들로 구성이 되며, 간부의 경우 3개월, 병사들의 경우에는 10주 간격으로 교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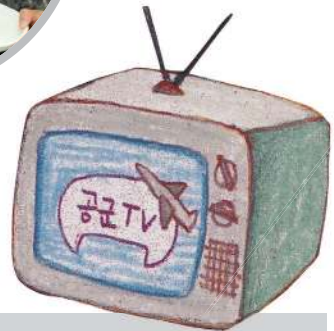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비상상황 대비

우리는 대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했음에도, 마지막 의문이 남았습니다. 기지내의 활주로는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 의문에 대한 파견대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공군 그것이 알고싶다' 비상활주로편을 마칩니다. (파견대장 중위 기민규) 비상활주로의 경우는 유관기관들과 임무를 분담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는 평시 비상활주로 주변의 제초와 청소작업, 즉각적인 비상활주로 이용을 위한 도장작업을 맡고 있고, 전남 지방경찰청 나주경찰서에서는 비상활주로 순찰과 교통통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공군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공군 식신로드 남도 맛의 중심, 광주에 숨겨진 '공군의 맛'



광주 1전투비행단에 처음으로 전속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음식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기본은 한다는 남도의 중심 광주를 찾았습니다. 1전투비행단 장병들의 역사와 함께해온 '새송정 떡갈비'와 광주와는 조금 안어울리는 아이템이지만 광주식 백반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동곡식당 꽃게장 정식'을 소개합니다.

설(서울) 가는 국방 열차 기다리며 - 새송정 떡갈비



유기농 쌈과 부드러운 떡갈비의 환상적인 조화

워낙 기본적인 맛이 탄탄한 광주이기에 특별한 맛집을 찾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곳에도 맛집 골목은 존재합니다. 바로 1전투비행단 후문과 가까운 송정 떡갈비 골목입니다. 이곳 골목에는 20여개에 달하는 떡갈비 식당들이 경쟁하듯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전투비행단 장병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 곳이 바로 이곳 새송정 떡갈비입니다. 1인분에 11,000원인 떡갈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맛을 지녔습니다. 충만한 맛의 떡갈비와 유기농으로 재배한 쌈과 함께 한입 넣으면 '아 내가 광주에 와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날 것입니다.



장병들의 애환을 덜어준 '무제한 갈비탕'

사실 새송정 떡갈비와 공군의 역사는 20~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주말에만 외박이 가능했던 그 시절, 1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병사들에게 새송정 떡갈비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6주간의 고된 군생활을 마치고 잠시 2박 3일의 휴식을 갖는 외박. 그 시작을 함께했던 장소가 바로 새송정 떡갈비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새송정 떡갈비를 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송정 떡갈비'는 장병들에게 안정맞춤 장소였습니다. 당시 외박을 나가는 시간은

Special Theme



8시였고, 송정역에서 하루에 한번 서울로 가는 TMO는 12시에 있었습니다. 4시간의 여유와 가벼운 주머니가 사정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 새송정 떡갈비였습니다. 사실 당시 병사들은 떡갈비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비빔밥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비빔밥만 시켜도 떡갈비를 만들고 남은 재료로 만든 갈비탕을 무한으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동료들과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소주 한잔 하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었을까요? 병사들이 외박을 나가는 금요일 아침이면 새송정 떡갈비집은 식당이 전부 공군장병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맛'

공군 병사들과 함께해 온 '새송정 떡갈비' 지만 세월의 변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TMO는 오전으로 바뀌었고, 굳이 떡갈비 골목까지 나오지 않아도 병사들을 유혹하는 많은 먹을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제 외박 나가는 병사들이 새송정 떡갈비를 거쳐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1전비 병사들은 이 식당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의 맛집이 어디냐고 묻으면 '새송정 떡갈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쳐 간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이 집의 '맛'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송정 떡갈비 (062-941-335) 찾아가는 길 - <내비게이션> : 광주 광산구 송정 2동 826-7 / <철도/지하철> 광주 송정역 하차 도보 5분(송정 2동 주민센터 앞)

남도는 어묵 조림
하나까지 맛있다
- 동곡 식당
꽃게장 정식



광주에 게장 골목이?

여수에 게장 골목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광주에 게장 골목이 있다는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도시도 아닌 광주에 유명한 음식이 게장 정식이라니. 이에 대해 광주 출신의 1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김정훈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에 게장 골목이 있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광주에는 수산물도 발달해 있어요. 왜 인고 하니 대부분의 수산물 양식이 전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가 전라도의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잡힌 수산물들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장도 하나의 반찬일 뿐이라는 놀라운 진실

여수의 게장 골목 식당들이 게장에 8할 정도로 비중을 둔다면, 광주의 게장정식은 게장의 비중이 2할도 안될 것입니다. 게장은 광주식 백반에 속한 하나의 반찬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다른 반찬들이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2인 밥상을 기준으로 제육볶음, 콩치, 계란찜, 젓갈류 등 총 20가지의 반찬이 제공되는데, 하나하나 맛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한 식당의 구색 맞추기식 반찬이 아닙니다. 어묵조림에 감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입이 짝은 사람도 밥 한공기로는 절대 마무리할 수 없을 겁니다. 게장은 1회에 한해 리필이 가능합니다. 꽃게장 정식이 1인 7,000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도 장점입니다.

동곡식당 (062-943-5005) 찾아가는 길 - <내비게이션> : 광주 광산구 하산동 4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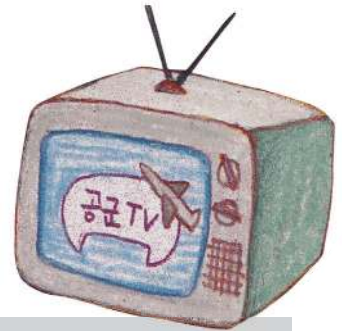


슈퍼군가

슈퍼군가 A(Airforce)

공군인이 뽑은 단 하나의 군가

5,833명 공군인의 선택, 공군 인기군가 TOP 10



공군인이 뽑은 단 하나의 인기군가, 슈퍼군가 A(Airforce)! 지금부터 5,833명의 공군인들이 직접 선택한 슈퍼군가 Top 10을 공개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군가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0~9위

10위 - 솟아라 보라매

(91명, 득표율 1.5%)



9위 - 전우

(96명, 득표율 1.6%)



Top 10에 간신히 턱걸이 한 주인공은 바로 '솟아라 보라매' (10위)와 '전우' (9위)입니다. '솟아라 보라매'는 공군 군악대 출신의 윤정모 작곡에 공군 정훈감실에서 작사한 곡이고, '전우'는 연세대 교수를 지낸 나운영씨가 작곡하고 시인 박목월 선생이 직접 작사한 곡으로 유명한 군가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가사를 다시 음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다" 이들 두 군가는 모두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당시는 군가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군가들이 제정되고 불려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가들이 나온데는 월남의 패망과 미군 철수 움직임, 적의 대통령 암살 기도 등 불안한 안보상황이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솟아라 보라매를 선택한 공군인들은 공군 군가 특유의 경쾌한 리듬과 독특한 후렴구를 매력요소로 꼽았는데요. 공군군가에 흔히 등장하는 조종사와 보라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솟아라 보라매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공!군! 우리는 공군! 공!군! 정예의 공군!"

8~7위

8위 - 보라매 형제

(125명, 2.1%)

7위 - 푸른소나무

(172명, 2.9%)



지웅 작사, 정민섭 작곡의 보라매 형제(8위)는 60년대 만들어진 군가입니다. 당시 LP판을 보면 군가를 가요와 함께 묶어 판매할 정도로, 군가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습니다. 외박을 마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움을 담은 '아가씨 날 잊지 마요~ 요 다음 토요일까지'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군가지요. 반면 김용범 작사 송중근 작곡의 푸른소나무(7위)는 1997년에 만들어진 신세대 군가입니다.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푸른소나무가 어떤 군가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실제로 2001년에 처음으로 공군에 발을 들였던 저도 '푸른소나무'라는 군가를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설문조사 보기 문항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요즘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군가라고 합니다. 박효신이 군복무 하던 2012년에는 당시에는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Special Theme

6~5위

6위 - 신념의 조인
(182명, 3.1%)



5위 - 보라매의 꿈
(241명, 4.6%)



6위를 차지한 '신념의 조인'은 군가 제목이기도 하지만, 단어는 6·25전쟁당시 한국 공군 훈련책임자였던 딘 헤스 대령에서 유래합니다. 그의 좌우명, 'By Faith I Fly'를 그의 무스탕 항공기에 번역해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 옮겨 적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군가 '필승 공군'에도 '신념의 조인'이라는 가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공군 정훈감실이 작사하고 여대형 작곡가가 만든 '보라매의 꿈'은 훈련소에서 가장 각인되는 군가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 가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내집이다'

4~3위

4위 - 성난 독수리
(332명, 5.6%)



3위 - 빨간 마후라
(436명, 7.4%)



각각 4위와 3위를 차지한 군가 '성난 독수리'와 '빨간 마후라'는 60년대 제정된 군가로, 영화의 주제곡을 군가로 채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군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었었는데, 인기 있었던 영화의 주제곡들을 군가로 활용한 것입니다. '빨간 마후라'는 익숙하지만, 영화 '성난 독수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난 독수리'는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신영균씨가 주연한 영화로 역시 조종사들의 삶을 다뤘습니다. 빨간 마후라의 개봉이 1964년이었고, 성난독수리가 1965년인 것을 감안하면, 빨간 마후라의 후속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난 독수리'와 '빨간 마후라'는 국민들이 군가를 함께 따라 부르는 시초가 된 군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위

2위 - 공군가
(1,453명, 24.9%)



최용덕 장군이 작사하고, 가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성태씨가 작곡한 '공군가'는 두 말할 나위 없는 공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군가입니다. 또한 공군 고유 군가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공군가를 시작으로 공군인들의 삶을 다룬 군가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군가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했던 군가이기도 합니다. 공군가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만들어졌는데, 당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싸우던 선배 전우들에게는 신앙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위

1위 - 전선을 간다
(2,091명, 37.4%)



공군인의 선택, 슈퍼군가 A 대망의 1위는 예비역이 뽑은 인기군가에서도 1위에 올랐던 명불허전 군가 '전선을 간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선을 간다'는 국군홍보관리소(현 국방홍보원)에서 제작한 영화 '천군수첩'에 삽입되었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만들어진 1980년 당시 국방부는 문인들과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GOP를 견학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무렵 제작된 군가들은 '전선을 간다'처럼 군인정신 함양은 물론 친숙한 멜로디들로 구성된 곡이 많다고 합니다.

+ 보너스 트랙

순위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공군인이 선택한 군가들을 보너스로 소개합니다. 신병 2대대가는 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신병 2대대가(63명), 고향의 향수(87명), 여기에 섰다(52명), 블루스카이(36명), 멋진 사나이(25명), 우리가 말았다(17명), 방공유도탄사령부가(14명), 멸공의 횃불(13명), 구보가(10명), 기본군사훈련단가(9명), 아리랑 겨레(7명), 11비 단가(4명), 19비 단가(1명)



글·사진 제공
이예진
(MBN 정치부
출입기자)



윤미영
(프리랜서
방송작가)



사진출처
DAUM 영화



공군! TV 비디오 여행

공군장병들에게 추천하는 9월의 공연 / 영화



즐거나 혹은 나쁘거나 영화, <일대종사>

‘중경삼림’으로 대표되는 90년대 스타일리시 영상미학의 대가 왕가위 감독이 오랜 침묵을 깨고 새 영화 <일대종사>를 발표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중국 전통 무술을 소재로 한 본격 액션 영화라는 사실이다. 이소룡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중국의 무술 영웅 ‘염문’의 일대기와 그와 정신적인 교감을 이루는 연인 ‘궁이’와의 오랜 인연을 그리고 있는 영화. 하지만, 소재가 달라졌다해도 감독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 즐거리대신 이미지와 영화 전반에 흐르는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화는 오랜만에 만난 왕가위 스타일에 반가울 수도 있고, 혹은 조금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 보편성보다 전적으로 취향에 의존하는 영화다.

- +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의 정석. 액션씬들은 두말할 여지 없이 그저 황홀할 뿐이다.
- 왕가위, 염문, 중국무술 이 셋 중 무엇 하나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영화



기대의 크기만큼 달라지는 만족도 영화, <엘리시움>

몇 해 전 외계인을 소재로 한 독특한 상상력으로 주목받은 영화 ‘디스트릭트 9’을 만든 신예감독 닐 블룸캠프가 매트 데이먼과 조디 포스터라는 헐리웃 톱스타들을 기용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 멀지않은 미래 오염된 지구에는 가난한 사람만 남고 1%의 부자들은 지구 밖 인공도시 ‘엘리시움’에서 거주한다. 당연한 차별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만인의 평등을 위해 영웅이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펼쳐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기대는 안하고 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듯하다. 포장은 매우 거대하지만 알맹이는 그에 비해 초라한 느낌. 특히, 전작이 화려했던 감독의 후속 작품 치고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 + SF 영화가 보여줘야 하는 기본적인 액션, 판타지 등은 적정 수준 만족시켜주고 있다.
- 영화를 보고 남는 것은 결국 주연 배우도 영화의 메시지도 아닌 영화의 소품이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영화를 본 후 이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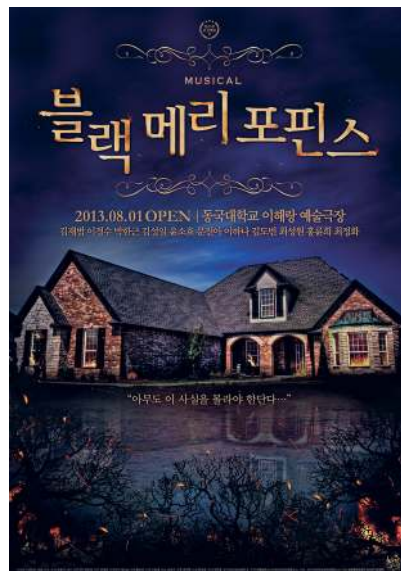
Special Theme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를 위한 연극 신구 손숙 주연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는 간암 말기의 아버지를 지켜보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덩덤하지만 사실적인 묘사로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는 연기 인생 5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 신구와 손숙이 부부로 출연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 이 작품은 작가 김광택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간암 말기의 아버지가 고통으로 인한 간성훈수 상태에서 ‘굿을 해달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시작됐다. 작가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움이 덕지덕지 붙은 곳이 있어도 가고 싶다고 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한 위로의 굿 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탈고했다는 작품이다. 작품 중 아들이 아버지 배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배 안 아프죠?”라고 묻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 장면이 있다. 작가는 바로 그 한 순간을 위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일 년에 아버지와 수차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

기간 : 9월 10일 ~ 10월 6일
장소 : 서울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
가격 : R 5만 / S 4만 / A 3만원
홈페이지 : <http://www.whitehall.kr/>



김수로가 만드는 본격 심리추리스릴러 뮤지컬 〈블랙메리포핀스〉

뮤지컬 〈블랙메리포핀스〉는 1926년 나치 정권 아래 저명한 심리학자의 대저택 화재사건에 얽힌 네 남매와 사건 용의자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추리스릴러이다. 보통의 추리스릴러와 다르게 결과에 대한 인과를 찾아가는 역발상으로 기존의 추리스릴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다.

김수로와 스타 연출가와의 만남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김수로는 2년 전 연극 〈발칙한 로맨스〉를 시작으로 〈이기동체 육관 앵골〉, 최근 〈유럽블로그〉를 거치면서 대학로 흥행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뮤지컬 〈늑대의 유혹〉을 시작으로 첫 연출작인 연극 〈밀당의 탄생〉을 성공반열에 올려놓은 대학로의 스타 극작가 겸 연출가 서윤미의 에너지도 한 자리에 볼 수 있다. 안무는 김수로판 심리추리스릴러를 뒷받침해 주는 장치로 활용됐다. 이야기 속에서 이질감이 들 수 있는 안무가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지면서 음악 위주의 뮤지컬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누가’가 아닌 ‘왜’에 초점이 맞춰진 본격 심리추리스릴러, 김수로의 스릴러물이라면 여름의 끝도 기대할 만하다.

기간 : 9월 29일까지
장소 : 서울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
가격 : 일반석 5만 5천 / 시야방해석 4만 4천원
홈페이지 : <http://www.이해랑예술극장.com/>



더 강력한 이름으로 돌아왔다

공군 이름 시즌 2

기네스



문 싱글 상병



절대 혼자 살지 않겠다!

[AF] 현재 맡고 있는 임무는 무엇인가요?

공군 최남단 제주도 관제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F] 독특한 이름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 내국인 체크를 했는데 몇 번이고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설정했더니 바로 회원가입이 되었습니다.

[AF]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 혼자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누나 이름이 '방글'입니다. '싱글방글' 이죠.

[AF] 그렇다면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을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5년째 교제중인 '아이유'를 닮은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AF] 독신주의 아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겁니다.

[AF]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여러분도 싱글 되지 마시고 예쁜 짝 만나셔서 '싱글방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AF]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살다가 대학진학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현재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는 16전투비행단 군견소대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F]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처음으로 후임을 받았는데, 저를 보면 말도 못붙이고 자꾸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제 이름을 한 호흡에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머뭇거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제 이름을 어떻게 세 번에 끊어서 말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AF]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파라과이에 저와 이름이 같은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처럼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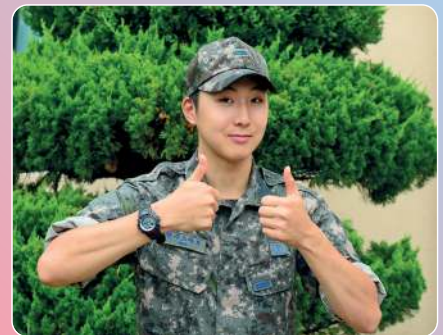
[AF] 별명이 있나요?

특별한 별명은 없고, 사람들이 '파보' 라고 부릅니다.

[AF]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혹시라도 지나가다 저를 만나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한구스파보 일병



내가 파라과이의 이순신이다!

Special Theme

[AF] 지금 맡고 있는 임무는 무엇인가요?

2여단 예하 포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F] 이름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 이름이 신대륙이다 보니까 누구나 제 이름을 들으면 아버지 성함은 콜럼버스냐고 되묻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별명은 콜럼버스가 되었습니다.

[AF]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특별한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하신 끝에 지으셨다고 합니다. 크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AF] 미국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역하면 제 고향같은 곳인 미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AF] 존경하는 위인이 콜럼버스입니까?

존경하는 위인이 딱히 없는데, 콜럼버스는 제 삶에서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AF] 그럼 달걀은 좋아합니까?

달걀 킬러입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신대륙 상병



콜럼버스 아버지가 지었다!

박뿌리 상병



내가 식물 이름 집안의 대들보다!

[AF] 현재 맡고 있는 임무는 무엇인가요?

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소속으로 경계병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F]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버지께서 사촌형 이름(박녕쿨)이 예쁘다고 식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AF] 형제들 이름도 특이한가요?

네 저희 형은 박줄기이고, 사촌들로는 박녕쿨, 박열매, 박꽃 등이 있습니다.

[AF] 본인 이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특이해서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점이고, 단점은 특이해서 놀림거리가 많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AF] 공군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군의 뿌리는 공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뿌리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AF]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예쁜 이름 추천해 주세요. 제 자식은 정상적인 이름으로 짓고 싶습니다.

[AF] 지금 맡고 있는 임무는 무엇인가요?

20전투비행단 부품정비대대 항법반에서 항공기 내비게이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AF] 이름 때문에 재미있었던 사연은요?

신병이 새로 들어와서 짜파구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병이 하는 말이 "짜파구리 완전 신세계입니다. 아...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F]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난 공군 이름 기네스에 제 이름이 만나와서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세상 세(世)에 지경 계(界)자를 써서 세상을 널리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F] 신세계백화점을 자주 갑니까?

사실 전 롯데백화점을 주로 이용합니다.

[AF] 공군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공군지, 저도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잡지인데요. 직접 공군지 주인공이 되어보니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상병



롯데백화점을 애용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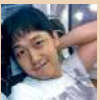
글
중위 정다훈
(공군본부
미디어
영상팀)



사진
중사 권형
(공군본부
공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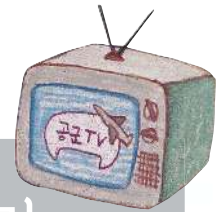


편집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
영상팀)



DOCUMENTARY
다큐멘터리

5일



최초 공중급유 전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Red Flag Alaska)의 기록들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알래스카)연합훈련을 위해 역사상 최초로 공중급유를 통해 해외로 전개한 대한민국 공군. 그 가슴 뭉클한 순간들을 포토스토리로 담아봅니다.



Special Theme



8월 1일 16:00 (한국시간) / 11전투비행단 출정식

“필승! 대령 박하식 외 89명은...”



태극마크 하나 달았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가짐도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 같다. 더 이상 각자의 특기는 접어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공군의 위력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다.

앞으로 펼쳐질 훈련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남겨두고 가는 가족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또 자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뛰놀던 아이들도 아빠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니 말이 없어진다. 직감적으로 느낀 것일까?



본대는 전세기를 타고 바로 출국하고, 전투기를 전개시킬 조종사들은 다음날 공중급유를 통해 태평양을 건널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 역사상 최초로 우리 전투기를 가지고 전개하는 훈련이다. 그것도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 F-15K로 말이다.

8월 2일 04:30 (한국시간) / 11전투비행단 페리(Ferry)비행 이륙

7천km가 넘는 거리, 7차례의 공중급유를 받아야 한다. 휴식없이 이어지는 9시간의 논스톱 비행. 조종사들은 육포와 초코바를 먹으면서, 화장실 한 번 가지 못하고 태평양을 건넜다. 처음 하는 페리비행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는 없다.





금연 · 건강식단 · 생명사랑 

트트 공군, 건강한 병영



금연하고 사랑받아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간호사 김유경 중위
저염식, 천연조미료, 건강식단! 맛있는 밥을 짓습니다. -급양병 한종태 상병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생명사랑교관 권순정 주무관

당신의 건강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대한민국공군





글
대위 김나영
(공군본부
미디어
영상팀)



사진
상사 김경률
(공군본부
공보과)



공군TV 초대석

야구의 계절 가을, 야구 여신 공서영을 만나다



야구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야구의 높은 인기만큼이나, 야구 아나운서들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아나운서가 바로 XTM '베이스볼 워너비'의 진행을 맡고 있는 공서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8월 11일, 서울 독산동의 XTM 녹화 스튜디오에서 공서영 아나운서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서영 아나운서는 우리 공군 가족이기도 합니다. 공서영 아나운서의 형부가 작전사령부에서 공군장교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앞둔 바쁜 시간임에도 친절하게 취재진을 맞이해 주신 공서영 아나운서에게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구여신 공서영 아나운서와의 인터뷰, 지금 출발합니다!!

Special Theme

공서영이라 쓰고 야구여신이라 부른다

[AF] 많은 공군 장병들이 공서영 아나운서의 팬입니다. 그 중 제가 대표로 왔는데요. 공군 장병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서영 안녕하세요. XTM 야구 아나운서 공서영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형부가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아주 친숙합니다. 공군 장병분들도 야구 좋아하시죠? 채널권이 있으신 선임병사 여러분, 야구 하이라이트는 XTM으로 맞춰주세요! (웃음)

[AF] 야구 아나운서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요. 여전히 공서영 아나운서님에게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가 '겉그림 출신 아나운서'입니다. 활동하시는데 부담되시지는 않나요?

공서영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이니까요. 저도 가수 활동할 때 공군부대에 공연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조종석에도 앉아보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열혈 야구 아나운서 공서영

[AF] 야구 아나운서를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야구 아나운서가 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공서영 가수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야구 아나운서가 된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좋아하지 않으면 큰 흥미도 못 느끼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될 때까지 하는 편이에요. 노래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했었던 것이고, 그 일이 잘되지 않았을 때, 야구에 흥미를 느끼게 돼서 직업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과정이든 힘들지 않은 것은 없고,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 자체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쉽게 극복되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도전을 해야 할 것이라면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AF] KBS N SPORTS 아나운서로 발탁되셨을 당시에 '고졸' 학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펙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과 능력으로 학력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공서영 저는 아나운싱 같은 부문은 부족하더라도 그들보다 스포

츠를 더 좋아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 부분을 높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스포츠 아나운서를 공중파 아나운서로 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지원자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간절함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AF] XTM으로 옮기신 이후에 더 많은 발전을 이뤘고 스타 아나운서 반열에 오르게 되셨는데요. 처음 베이스볼 워너비 진행을 맡으시면서 '어떤 방송으로 만들겠다' 라고 다짐하셨던 것이 있나요?

공서영 제가 지난 시즌 중반에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에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던 것은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보자는 제작진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죠. 채널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야구를 보는 팬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야구팬들한테는 '내가 응원하는 팀은 까도 내가 깐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항상 새로운 방송의 형식을 연구했고, 이를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시청률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AF] 야구의 모든 경기가 종료되는 밤시간에 생방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서영 저희 일과가 조금 늦게 시작됩니다. 보통 낮 11~12시 정도에 일어나서 어제 방송분을 모니터하구요. 미용실에 가서 변장(?)을 하죠. (웃음) 4~5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사전회의를 하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다함께 야구를 봐요. 야구가 한창인 7~8회 말이 되면 분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준비해요. 방송의 특성상 모든 것이 생방송이고, 대본도 방송직전에 받아보기 때문에 순발력이 정말 중요하죠. 한 시간 생방송을 하면 12시 정도가 되요. 집에 가서 스포츠 기사들을 모니터하고 잠이 들어요.

[AF] 매일 4개의 야구경기를 동시에 보는일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공서영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A4 용지를 네 개로 분할해서 메모를 하는데, 생방송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작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작가님들이 써주시니까요. 크게 보고 이해해야만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F] 야구가 없는 시즌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공서영 야구 시즌이 끝나더라도 선수들은 잠깐의 휴식 후에 바로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선수들의 시즌 준비에 맞춰 움직입니다. 스프링 캠프부터 따라가서 취재를 시작하게 되죠.

야구와 사랑에 빠진 여자 공서영

[AF] 비가 와서 야구가 취소되는 날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공서영 저희 베이스볼 워너비 방송은 최소한 두 경기를 해야 방송이 나가요. 그래서 날씨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에요. 사실 야구팬일 때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너무 쉬고 싶은 날은 비가 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웃음) 노하루가 생기다보니 어느 정도 비가 내리면 방송국으로 아예 출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AF] 매일 계속되는 생방송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

습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공서영 저는 일로 받는 스트레스를 일로 푸는 편이에요.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어봐야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니까요.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일로 풀면 오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방송이 잘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

[AF]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선배 아나운서는 누구인가요?

공서영 스포츠 아나운서가 두각을 나타낸지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김석류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그분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이 하고 싶다고 느꼈었죠. 그분은 눈길을 잡아두는 매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F] 요즘은 야구프로그램의 인기만큼이나 야구 아나운서들 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공서영 제가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나운서들과는 친분이 깊어요. 처음에는 다른 아나운서들을 경쟁상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들을 뛰어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스포츠 여자 아나운서의 수명이 짧은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혼자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AF] 팬들에게 어떤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공서영 제가 야구팬이었을 때 김석류 아나운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 만큼만 팬들께서 저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생겨나더라도, 공서영 아나운서는 열정 넘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아나운서였다고 생각해 주

Special Theme

셨으면 좋겠습니다.

[AF] 최근에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시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가시는 것 같습니다.

공서영 정확히는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에요. 수호오빠랑은 가수 시절부터 잘 알던 사이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 수호오빠가 선물로 베이스볼 워너비 엔딩곡을 지어줬어요. 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엔 야구, 채널은 고정!

[AF] 얼마전에 '비명 시구'가 화제였는데요,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공서영 시구는 야구팬들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에요. 저에게도 기회가 왔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비명소리가 나왔죠. 이런 사태가 있을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큰 교훈을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시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AF] 야구 전문가로서 바라보시기에 올해 가을야구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공서영 제가 야구 전문가는 아니구요. 사실 전문가들도 그런 질문은 정말 어려워 하세요. 제가 어떤 팀을 지목한다는 것은 정말 실례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F] 혹시 좋아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서영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팀은 없어요. (웃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날그날 응원하는 팀과 선수가 바뀝니다!

[AF] 마지막으로, 공군 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공서영 공군 장병 여러분, 야구의 계절 가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가요? 스트레스는 야구로 훌훌 털어내시고, 채널은 XTM '베이스볼 워너비'로 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대위 김나정

사진
김재기
(프리랜서
작가)

증사 권형
(공군본부
공보과)

포토 스케치

알래스카 상공의 F-15K, 그리고 태극기



지난 8월, 공군에게 가장 의미있었던 일은 F-15K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태평양을 건너 Red Flag Alaska 훈련 장소인 알래스카 아일스 기지로 전개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진 훈련에서 우리 장병들은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알래스카 상공을 비행하는 F-15K 전투기를 현지 취재팀이 담았습니다. 뒷면의 야구여신 공서영 아나운서도 놓치지 마세요!

알래스카 상공을 비행하는 F-15K 전투기



촬영 : 중사 권형(항공촬영 전문자격 부사관)

2013 **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3
September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하하야! 더크 핑





서울연맹
경기남부연맹
경기북부연맹
충북연맹
전남연맹
부산/경남연맹
대전/충남연맹
대구/경북연맹
광주/전남연맹

02.953.4347

02.3649.1129

02.455.9988

043.224.5599

063.277.9510

051.364.5988

042.482.1678

053.422.8875

062.473.5585

경찰청 소관기관



글
대위 이동혁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사진
공군본부
비서실



참모총장 군사외교활동, '한·미 군사협력 강화방안 모색'

참모총장은 8월 2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활발한 군사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참모총장은 하와이
美 태평양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갈라일(Herbert J. Carlisle) 대장과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뉴욕 유엔본부를 찾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숙 유엔한국대표부 대사를
만나는 한편, 펜타곤에서는 美 공군참모차장 스펜스(Larry O. Spencer) 대장을 만나 한·미 공군의 협력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슈왈츠 前 美 공군참모총장에게 훈장 전수



참모총장은 8월 9일 美 워싱턴 공군본부에서 노트 슈왈츠(Norton A. Schwarts) 前 美 공군참모총장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보국훈장 통일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훈장을 직접 전달하며, “슈왈츠 전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국 공군의 작전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주한 美 공군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한미 관계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공군군악대, 대한민국의 위상 높여 줄 것 기대”



참모총장은 8월 16일 계룡대 실내체육관에서 「러시아 국제군악제」에 참가하는 공군군악대의 참가시연회를 관람하고 관계관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시연회는 생동감 넘치는 마칭공연과 러시아 현지 교민들을 위한 위문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모총장은 “그동안 대회 참가준비를 위해 수고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군군악대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여 줄 것을 기대한다.”며 격려했습니다. **AF**



AIR FORCE MONTHLY

September. 2013

MONTHLY MAGAZINE VOL.423

www.airforce.mil.kr



18전비 205전투비행대대, 13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

F-5 단일기종으로 36년간
사고 없이 영공방위 임무 완수

8월 6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 205전투비행대대가 13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205전투비행대대는 대대가 창설된 1977년 9월 20일부터 35년 10개월 동안 한 건의 비행사고도 없었다. 한 대대가 한 종류의 전투기만을 운용하며 이뤄낸 기록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쾌거이다. 비행대장 김학수 소령은 "13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은 대대를 거쳐 간 선·후배 조종사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이다. 빛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205대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38전대-美 8비, 한·미 연합작전준비태세 훈련 전시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

공군 38전투비행전대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한·미 연합작전준비태세(ORE)훈련을 실시했다. 38전대는 대규모 연합 편대군 훈련을 비롯해 항공기 긴급수리 훈련, 연합 대테러 대응 훈련, 대량 환자 구호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펼쳤다. 전대장 서민오 대령은 "무더운 여름에 실시하게 된 이번 연합 훈련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전투수행능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



5비, C-130 수송기 린스작업 시원한 물세례 받는 C-130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기정비대대가 C-130 수송기의 린스(Rinse)작업을 실시했다. 린스작업은 압축노즐을 이용하여 세척제 혼합 없이 깨끗한 물을 발사해 항공기의 염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다. 5비 항공기정비대대장 임상호 소령은 "린스 작업은 염분을 제거해서 항공기 부식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공군·한국항공소년단 '2013 공군항공우주캠프' 개최 하늘과 우주 향한 꿈 키워요!

공군과 한국항공소년단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간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제17전투비행단, 6팀 색구조비행전대 등지에서 '2013 공군항공우주캠프'를 개최했다.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 80명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홍콩의 국제항공소년단원 14명 등 총 94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수중생환훈련과 마타워, 레펠, 암벽등반 훈련을 체험했으며, C-130 수송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등 한여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19전비, 충북 다문화가정 자녀 초청 인보체합 저도 자라면 멋진 대한민국 공군 될래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8월 6일 충북 괴산군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24명을 초청해 나라사랑 인보체합'을 실시했다. 부대를 방문한 어린이들은 KF-16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항공기 무장전시장을 견학하고, 시뮬레이터에 실제로 탑승해 비행훈련을 체험한 후 비상대기실에서 24시간 비상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조종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부대를 방문한 강홍규 학생은 "저도 커서 군대에 가게 되면 공군에 가서 전투기 조종사 아저씨들처럼 믿음직한 군인이 되겠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1전비, '13-3차 고등비행수료식 거행 최정에 공군 신임조종사 59명 탄생

8월 13일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된 '13-3차 고등비행수료식에서 59명의 학생조종사들이 뺑간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정식 공군조종사로 임명됐다. 이날 수료한 조종사들은 수송기와 헬기, 또는 '전투기입문과정(LFT)', '직전기능훈련(CRT)'을 거쳐 전투기조종사로 활약하게 된다. 공군참모차장 김형철 중장은 신임조종사들에게 직접 뺑간마후라를 매어주며 "조종사의 길은 영광되고 보람된 길인 동시에 무한한 충성을 필요로 한다. 충성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공·해군 최초 합동 불발탄 처리 바다 속 불발탄 처리에 공·해군 나섰다!

공군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적도사격장 인근해역에서 불발탄 12발을 수거해 처리했다. 공군은 그동안 수심 18m까지만 작업을 벌여왔으나, 올해는 해군 UDT 폭발물 처리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직도와 대직도에서 반경 50m, 수심 30m 이내에 가라앉아 있는 불발탄을 탐색·처리할 수 있었다. 작전사령부 군수처 김진식 중령(공사 42기, 42세)은 "공군은 적도 인근 어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부터 해양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라고 말했다. **AF**



공군의 얼이 살아숨쉬는 대정초등학교 & 강병대교회

되어 238회 시위에 연 1만7천여 명의 참녀들이 일제의 착취에 항거해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우리들은 가이 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도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배움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 농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의 피와 땀을 착취하다/ 가이 없는 우리해녀 어디로 갈까

소섬(牛島) 출신 강관순(姜寬順) 해녀가 지어 참녀항쟁가로 불렸던 「해녀의 노래」다. 그 노래는 지금 구좌읍 상도리 연두망 작은 동산에 있는 제주해녀항일기념공원 안에 있는 해녀박물관의 맞은 편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제주해녀항일기념탑에 새겨져 있다.

이렇듯 제주도에서는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국지사들이 항일민족교육운동을 벌렸다. 대정초교는 훈적비 말고도 아주 유서 깊은 비가 있는데 교문 옆에 있는 ‘대한민국해방기념비(大韓民族解放記念碑)’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 민족교육을 받은 대정초교 34, 35, 36회 졸업생들이 8·15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5년 동안 십시일반(十匙一飯) 돈을 모아 1950년에 세웠다. 그 비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수많은 의사와 열사의 위국충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존재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의 하늘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때 대정초교에서 주둔했던 공군사관학교에서 길러낸 1,000여 명의 정병(精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정초교와 같은 마을에 있는 강병대교회(强兵臺敎會)는 6.25 전쟁 때 제2대 육군제1훈련소 소장 장도영(張道暎, 1923~2012) 장군의 지시로 1952년 5월 1일 기공해 그해 9월 14일에 준공된 교회로 지금은 등록문화재 제38호로 대한민국 공군의 군목이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다. 공군기지부대원은 물론 인근 해병대부대원이 함께 예배를 본다.

강병대교회의 ‘강병대’는 육군제1훈련소의 통칭으로 ‘강[強]한 군사[兵]을 기르는 터전[臺]’이라는 의미로 국군장병들이 예배를 보며 정신무장을 하던 곳이다. 6·25 전쟁 당시 모슬포에 있던 육군제1훈련소에서 제주도의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병을 얻어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었다. 그런 동료들의 죽음을 본다든가 육지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전쟁 상황을 전해 듣는다든가 하면 국도의 두려움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런 속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쟁터로 배치돼 전선으로 떠날 때 교회에 들려 기도하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조국을 기필코 지키겠다는 용기를 냈다.

그런데 강병대교회는 1965년 공군 제8546부대의 기지교회로 편입된 후 가난해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회건물 안에 야학으로 ‘신우고등공민학교(信友高等公民學校)’를 개설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게 된다. 가난해서 정규 중학교는 못 갔지만 배우고자 한 학열에 불타는 청소년들에게 공군장병들이 교사로 나서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1966년부터 1981년까지 15년 동안 14회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때 대정 모슬포 일대의 청소년들에게 주경야독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 값진 대민봉사는 청사(淸史)에 길이길이 남으리라. **AF**





제주도 남제주 대정읍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교정에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훈적비(空軍士官學校 訓蹟碑)'가 있다. 대정초교는 공군사관학교의 자매학교다. 그래서 공군은 1908년 개교해 200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대정초교 6학년 어린이 135명을 수송기에 태워 육지로 수학여행을 보내 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졸업식 때 공군사관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 인연은 대정초교가 한때 공군사관학교의 주둔지였기 때문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모여든 공사 1기의 젊은이들/ 6·25 기습남침에 이를 갈며/ 1년여의 정든 김포 캠퍼스를 떠나/ 부슬비에 젖던 수원행 밤길/ 27일의 악몽 어이 잊으리// 대전과 대구 기지를 거쳐 모슬포로 서울로 진해로/ 51. 8. 5의 졸업과 임관시까지 오척단구의 매서운 얼굴로 적어준/ 고영보 구대장의 교훈 한 마디/ 인간개조(人間改造)의 경륜 꿈엔들 잊으리

공사 1기생이면서 대령으로 전역한 시인 정해영의 시 「고영보 구대장을 기리며」다. 고영보 구대장은 나중에 공보부 차장을 지내고 초야로 돌아간 선비다.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사관생도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고 모여든 공군사관학교(당시 교장 최용덕 장군) 제1기생들이 북한의 6·25 기습 남침에 울분을 토하고 이를 갈며 피난길에 올랐다. 1년여의 정든 김포 캠퍼스를 떠나 밤에 보슬비를 맞으며 수원을 향해 떠난다. 대전과 대구기지를 거쳐 바다를 건너 모슬포를 건너와 현재의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대정초교를 임시 캠퍼스로 삼아야 했다.

지상에는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더라/ 세계에 무수한 나라가 큰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년의 역사가 혹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쳐 지하로 숨어들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 피가 되고 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김광섭(金光燮, 1905-1977)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나라」라는 애국시다. 그 당시에 1기 사관생도 중 앞서 말한 정해영을 비롯 김현일, 임택순, 고광수는 문학적 기질이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 피난의 임시 공사 캠퍼스였던 대정초교에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훈련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암송하면서 기어이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곤 했다. 그들은 임관한 뒤 최전선 강릉기지에 배치된다. 임택순 대위(추서), 김현일 대위(추서)는 고성지구 전투에서 351고지 지원작전에 출격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고성 상공에서 산화하고, 고광수 대위(추서)는 고성지구 시변리 전투에서 적의 대공포화에 피격돼 귀환 중 동해바다에 추락해 산화했다.

임택순 중위는 출격전날인 1953년 3월 6일, 영국(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묘지명(墓誌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보다 더 값진 '사생유명(死生有名) 남아종용왕대공(男兒從容往大空)'이라는, 즉 '살고 죽는 것은 목숨에 달려 있으니 사나이로서 조용히 넓은 하늘로 가리라'는 글을 일기장에 남겼고, 김현일은 삼팔따라지로 북에 두고 온 고향 평양을 그리며 동기들 앞에 나서서 가수 못지않게 잘 부르던 노래 「동심초」, 「능라도」 등을 더 이상 들려주지 못하고 산화했다. 그리고 고광수 대위(추서)는 전사해 강릉기지에서 영결식이 거행되었는데 편지로 사귀던 경남 진주 아가씨가 지아비가 될 고광수의 전사 비보(悲報)를 받고 실신해 까무라쳐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해 애석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아무튼 공군사관학교는 1951년 2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정초등학교의 일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밤낮이 전장터로 보낼 전시 교육 훈련을 했다. 무려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단기간에 1,073명의 기간요원(장교 후보생)을 배출한다. 이를 기리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훈적비 건립위원회(고문 김정렬, 위원장 이창규)가 1987년 10월 1일 '공군사관학교 훈적비'를 세운다. 그 후 22년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동안 제주도의 모진 풍상으로 인해 공군사관학교 훈적비 위에 설치한 청동 보라매상(像)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훼손이 심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다시 보수해 2009년 4월 15일 훈적비의 상징조형물인 '청동 보라매'의 제막식을 했다. 처음 건립할 때 훈적비의 빗돌 위에 보라매상만 있었으나 보수할 때 지구본 위에 앉아 있는 보라매상을 설치했는데 무서운 눈동자로 꿩이나 산토끼를 낚아챌 듯 사납게 노려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훈적비 앞면에는 "우리 공군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 목숨을 건다"는 공군가(空軍歌)의 일부가 새겨져 있다.

돌이켜보면 일제 식민지 지배아래 제주도는 외딴 섬이었지만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 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 등이 거세게 일어났다. 해녀 항일운동은 물질하던 잠녀(潛女)들이 1932년 1월 7일, 당시 구좌면 종달리 세화리 오일장 장터에서 일어나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글
한우성
(재미 언론인)



⑧ 미국의 서부 독립운동가이며 청년학생운동
대표를 역임한 조종사

최자남



태평양에 북이 떠 주강이 왜항의 만리를 부술
예상을 느낄 때에 대한민국의 마탄세 소리가
전래 구이다. 대한민국 1919년 7월 10일



최자남은 일제강점기 시절 미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조종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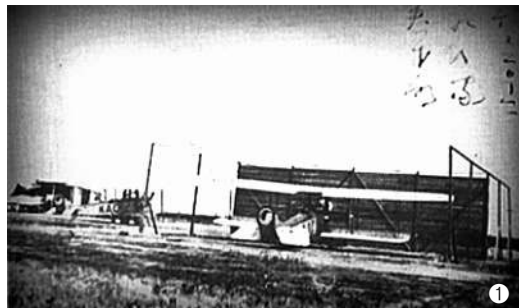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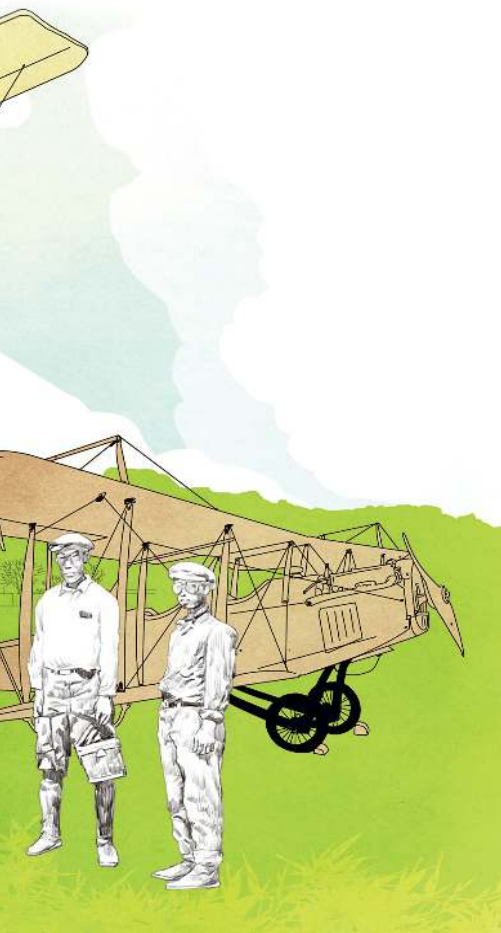
최자남의 원래 이름은 최정훈이었으나 미국에서 최자남으로 개명했고(신한민보 1919년 1월 23일), 강우규 의사가 결행했던 재등(齎藤) 총독 폭탄 투척 사건의 공모자로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던 또 다른 독립운동가 최자남과는 동명이인이다.

파일럿이 되기 전 그의 행적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인청년혈성단 대표를 역임한 것이다.

대한인청년혈성단은 3·1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된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청년들이 중심이 돼 독립전쟁을 목적으로 결성된 항일결사단체였다.

이 단체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요지를 골자로 하는 청년혈성단 취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전략)...중국과 러시아 각지 동포가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저들은 이미 사업을 정지하고 학업을 폐하였으며, 저들은 이미 생명을 버렸고 선혈을 뿌렸도다. 아— 재미동포여...(중략)...당신들이 멀리 이곳에 있어 동포의 살육 참보를 들 때에 눈물을 뿌려 조상함으로 무엇이 만족하며, 당신들이 원수 왜적의 포학만행을 볼 때에 소리를 질러 노기를 발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는가. 당신들은 무엇으로써 책임을 다 하려는가...(중략)...본단은 이상에 말한 희생적 정신을 발휘할 자의 맹주됨을 특히 표명하노라...(중략)...본단은 국혼이 있는 충의 용감한 열혈남녀를 단합하여 죽고 삶에 함께함을 맹약하고 우리 독립대사업을 기어이 이루기로 목적을 정하였다...



❶ 임시정부의 비행대 자료사진

(중략)…이 말을 책하러 하거든 우리 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어 보라…(하략)…”(신한민보 1919년 5월 31일)
청년혈성단은 취지서와 함께 공개한 의결안 속에서 강령 4개도 밝히고 있는데 ▲ 새로 건설한 우리 공화정부(註: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하여 혈성을 다할 것 ▲ 속히 우리 독립운동에 사용할 학술 혹은 군사상 기예를 배우게 할 것 등이다. 청년혈성단 대표를 역임한 최자남은 위 강령이 말하는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상 기예’를 배우기 위해 미 육군항공대에 들어가 파일럿이 됐다.
그의 미군 입대 목적은 신한민보 1919년 5월 29일자에서도 재확인된다. “본향(註: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류하는 우리 청년 최자남씨는…(중략)…조상나라 부모국이 부르는 그의 책임을 자각하고 비행술을 연구하고자 주선한 결과 미국 육군부 비행대에 입학하게 되어…(하략)….”
이 직후 발행된 신한민보 1919년 7월 8일자는 대한민국민회 북미총회 관할구역에 있는 유학생 명단을 게재했는데 이 명단에는 최자남이 비행대에 유학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파일럿이 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 육군에 들어간 최자남은 이후 샌디이iego(San diego,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항구도시) 육군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신한민보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의 소감을 밝히며 독립전쟁을 위해 한인청년들이 조종사가 될 것을 권고했다.

“비행연습생들은 매일 수백 척씩 비행하는데 비행소리에 정신이 현황하다. 흔히 장쾌한 감상이 많으나 비행자 중에 부상이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지 아니하되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비행기에 올라 태평양에 높이 떠 쥐 같은 왜왕의 머리를 부술 예상을 느낄 때에는 대한공화국 만만세 소리가 절로 나온다.…(중략)…누구든지 상당한 학식과 건장한 체격을 갖춘 이는 많이 비행생활을 시험하기를 권한다.”(신한민보 1919년 7월 19일)
최자남의 이 서한은 비행세기의 저자인 노정민이 같은 해에 미국 해군비행학교 생도로 있으면서 다른 한인청년들에게 독립전쟁을 위해 파일럿이 될 것을 권하며 썼던 서한(본지 2월호 참조)을 연상시킨다.
최자남은 이 서한에서 “같이 공부하는 인원이 300여 명인데 모든 범절이 학교제도로 편리롭고 자유로우며 여러 장교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따스한 동정을 주고 동무들도 모두 우대하여 매우 친절히 하는 고로 적이 위로가 되며”라고 밝히, 당시 미 육군비행학교에서 생도들을 교육하던 미군 장교들이나 생도들이 궁극적으로 조국독립을 위해 파일럿이 되고자 하는 한국인 생도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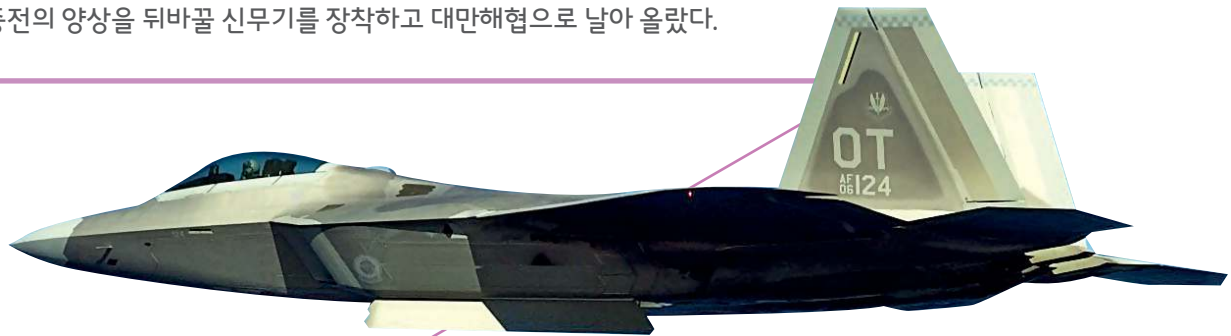
글 · 사진
제공
김대영
(한국국방안보
포럼[KODEF]
연구위원,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AIR-POWER REPORT

공중의 원샷원킬! 공대공 미사일 (Air to Air Missile)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58년,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8월 23일 중국군의 포탄이 갑자기 금문도¹⁾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대만 군도 포격을 실시했다. 양측의 포격전은 4주간 이어졌고, 하늘에서도 치열한 공중전이 전개되었다. 6·25전쟁 당시의 공중전을 연상시키듯, 중국 공군의 MiG-17 전투기와 대만 공군의 F-86 세이버(Sabre) 전투기는 물고 물리는 격전을 벌였다. 이러던 중 9월 24일 대만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는 이후 공중전의 양상을 뒤바꿀 신무기를 장착하고 대만해협으로 날아 올랐다.



중국공군을 놀래킨 미국의 신무기

당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군사원조를 단행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 내에서 개발이 막 끝난 상황이었으며,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긴급하게 대만에 제공되었다. 또한 대만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은 미 해병대 정비병들에 의해,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되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국공군의 MIG-17 전투기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에 달려들었다. F-86 세이버 전투기의 기종만을 생각했던 중국공군 조종사들에게 불현듯 불화살이 날라왔고, 10여 대의 MIG-17 전투기는 공중에서 산산조각난 채 대만해협으로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는 적기를 노린다

초기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유도 방식 때문에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유효사거리 또한 짧았다. 결국 전투기 조종사의 가시거리 안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적기를 요격하기 위해 반능동 유도미사일이 등장하게 된다. 반능동 유도미사일이란 레이더를 목표물에 조사시켜 그 반사원을 추적하여 목표물까지 유도되는 미사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공군의 F-4E 팬텀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AIM-7 스파로우(Sparrow) 미사일이다.

날카로운 외형과 달리 참새라는 귀여운 별칭을 가진 AIM-7 스파로우 미사일은, 1950년대 후반 미군에 배치되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불발되는 미사일이 많아 조종사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지난 1990년대까지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자리잡게 된다.

공중전의 양상을 뒤바꾼 공대공미사일

이날 등장한 공대공 미사일은 이후 공중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투기의 설계 및 성능개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전에서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고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은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무기였다. 일례로 1982년 포클랜드 분쟁 당시 영국 해군의 씨 해리어(Sea Harrier) 전투기는 아르헨티나 공군의 미라지(Mirage) 전투기에 비해 공중전 성능이 떨어졌지만, 최신에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압도적인 스코어로 미라지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시작된 공대공 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다.

적기를 쫓는 독사 사이드와인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전투기의 엔진 배출구나 기체에서 나오는 적외선 혹은 열을 감지해, 추적하는 형태의 미사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개발한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다. 사이드와인더란 별칭은 살모사과에 속하는 독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지난 1956년부터 미군에 배치된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미사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인 미사일로, 그동안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격추된 각종 항공기만 하더라도 270여대에 달한다. 지난 2002년 50주년을 맞은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초기형의 경우 엔진 배출구가 있는 적기의 후방만을 노려 공격해야 했지만, 1977년부터 생산된 AIM-9L 미사일의 경우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공격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AIM-9X 미사일의 경우, 헬멧장치조준장치와 연계되어 기축선상에서 벗어난 적기도 요격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

Fire&Forget

1976년 미군은 AIM-7 스파로우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 AIM-7 스파로우 미사일은 당시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지만 반능동 유도방식을 사용해 다수의 적기를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레이더를 감지한 적기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해 기습효과가 떨어졌다. 또한 전투기는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유도를 멈추고 도망갈 수 없어 생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결국 AIM-120 암람(AMRAAM: Advanced Medium-Range Air-to-Air Missile) 미사일이 지난 1991년 등장한다. 복합유도방식을 사용하는 AIM-120 암람 미사일은 전천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발사 초기에는 전투기의 레이더 지령을 받고 중간에는 관성유도 방식에 의해 목표에 접근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사일에 내장된 자체 레이더가 적기를 추적 요격한다. Fire Forget 즉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한 AIM-120 암람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 후 신속하게 이탈이 가능해 전투기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동시에 다수의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발전하는 공대공 미사일

고성능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함에 따라 공중전에서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공군의 다양한 작전 요구에 따라 작고 가벼우면서도, 더 멀리 더 빠르게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신형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미사일이 유럽에서 개발된 미티어(Meteor)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티어 미사일은 램 제트 추진기술의 하나인 덕티드 로켓(Ducted Rocket)을 장착해, 마하 4의 빠른 속도로 적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이탈 구역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AIM-120 암람 미사일과 같은 복합유도기술을 사용하지만 최신에 데이터 링크 기술을 적용, 실시간각변하는 적기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미사일이 정확하게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1) 중국 푸젠성[福建省] 아모이섬의 동쪽에 위치한 섬



편집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담벼락

그 해를 반쯤 자는 이들에게

이번 호 담벼락 주제는 ‘독서’였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꿈

중학교 2학년 시절, 책이라고는 만화책 밖에 읽지 않던 나에게 친구가 권한 책 한 권이 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결정지어 버렸다. 바로 ‘작가’ 라는 나의 꿈을 말이다. 사실 그 친구가 권한 책은 문학성이 풍부한 일반 소설도, 내가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강타한 베스트셀러도 아니었다. 바로 만화책과 같이 오락용 도서로 분류되고 있는 ‘판타지 소설’ 이었다.

‘프라우슈 폰 진’이라는 내가 난생 처음 본 판타지 소설은, 한 작가의 처녀작이었는데 당시 판타지 소설의 대부분이 그랬듯 그렇게 문학성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고 문체가 뛰어나지도, 스토리가 탄탄하지도 않은 평범한 판타지 소설이었다. 하지만 그 소설은 나에게 재미를 주었고, 감동을 주었고 더 나아가 주인공의 슬픔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난생 처음으로 책을 읽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나는 생각했다.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싶다고. 나로 인해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후로 나의 꿈은 작가가 되었다.

당시에 나의 열정은 정말 내 열정에 내가 데일만큼 뜨거웠다. 원래 늦게 자야 11시에나 자던 내가 새벽 2시, 3시까지 책을 붙잡고 읽었으며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소설을 쓰곤 했다. 책 출판 해보겠다고 방학동안 죽자고 글을 써서 책 두 권 분량을 뽑아내 투고도 해보았지만 답변도 없는 쓰라린 경험을 갖기도 했다. 내가 연재하는 사이트의 내 또래 신인 작가들이 출판에 성공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부러웠고 또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글을 썼다.

그 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잠시 글 쓰는 것을 멈추고 고민에 들어갔다. 대학은 가고 싶었으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남들이 다 가는 평범한 길을 가야 하나. 결국 어머니의 반대도 있고 해서 공대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2학년 2학기쯤, 시험공부를 하던 나의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하기 싫은걸 왜 내가 억지로 공공대면서 하려고 노력하나? 그 순간 결심이 섰고, 나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 몰래 문예창작학과로 전과를 해버렸다. 물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가 많이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상관없었다. 원래 꿈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 붙였으며, 결국에는 성공을 해냈으니까.

난생 처음으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수업을 들었다. 비록 주변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좋았다. 전날 밤을 새고 수업을 들었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남들은 다 재미없다고 투덜댔지만 나는 재미있었다. 비록 그 이후 바로 군 입대가 있어서 군 입대 전, 처음이자 마지막 수업이었지만 그 수업에서 나는 내 흥미를 보았고,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군 입대 후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 꿈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그 길 중 하나다.

요즘에 꿈도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몸이 가는대로 사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나처럼 평생 가지고 갈 꿈이 전혀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 하기 싫다고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꼭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서 살아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8전비 부품대대 유압반 상병 김지훈



아버지와 독서

아버지가 독서 중인 모습을 상상하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에 화색빛의 신문이 들려있노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그것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도 없으나 내가 신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 그로 인해 아버지와 있었던 갈등이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나는 원래 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책 읽을 시간에 문제집을 한 권 더 풀면 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을까라는 근시안적인 어쩌면 너무나도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고3 때 처음으로 경험한 실패, 그로 인해 불가피했던 재수생활이 나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나는 뜬금없이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눈술에서 악점을 보였던 내가 찾은 해결책은 책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원했던 방법은 계속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신문 사실을 읽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내가 입대하기 전까지도 형태만 변형되었을 뿐 지속되어 아버지와 나 사이의 오랜 냉전을 가능케 한 씨앗과도 같았다. 요즘 나는 대학 시절 재밌게 읽었던 정신분석학의 대가 칼 융의 『인간과 문화』를 다시 탐독하고 있다. 책이란 본디 그 글을 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의 진가를 한 번에 간파할 수 없듯이 '다시'라는 행위에 의해 언제나 새롭게 와 닿는 것이 있다는 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생각을 이기고자 반항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곤 했었다. '역시 이걸 내가 맞았군!' 하는 부분만을 읽으려 노력했다. 나는 칼 융의 말을 왜곡하고 있었고, 최근 다시 읽으며 깨달은 부분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융은 인위적 무의식성에 대해 설명하며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무의식적으로 강요됨을 주장했다. 이를 테면, 도덕적인 부모의 자식들은 비도덕적으로 살기를,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의 자식들은 명예욕이 강해지기를 무의식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화색빛 색깔만큼이나 극도로 이성적이었던 신문으로 하여금 나는 조금은 감성적이기를 무의식적으로 강요된 것이 나를 책으로 이끈 것이다. 또한 융은 『인격의 형성』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생기가 없다. 사실은 매우 보수적이다. 극도로 심각한 필요만이 그것을 깨워 일으킬 수 있다." 성격 발달 또한 소원, 명령, 통찰이 아닌 필요만을 따른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인격의 발달에 대해 개인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비한 욕설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신문을 화색빛으로 봤던 나는, 그 만의 필요에 의했던 성격발달을 결국 아비하게 힐난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행해져 의식 수준에 와서는 방어기제에 의해 합리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은 끊임없는 독서(책이든 신문이든 상관없다)를 통해 언어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7전대 기지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일병 문태환



독서는 나의 인생

스무 살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했다. 병사들보다 나이도 학력도 어린 어린하사였다. 점점 위축되어 가는 내가 싫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는 말이 생각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읽은 책이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었다. 주변에서는 이런 책을 읽는 것에 대견스러워 했지만, 사실 나는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어려운 책이 좋은 책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엔 왜 읽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십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는다면 아 그때 몰랐는데 이런 좋을 말이 있었구나 하면서 읽을 것 같다. 이후에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었다. 다들 비슷한 제목이라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책은 없다. 이 시기에는 의무복무 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꿈은 교사였다. 의무복무 후에 전역해서 사범대학을 가야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고, 수능관련 문제지를 사서 공부를 했다. 얼마 못가 문제지들을 다 버렸다. 현실에 나는 업무에 미숙한 하사였다. 그러면서 미래만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어린하사였다. 그리고 영외거주를 나가서 '책날다'라는 온라인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책을 많이 읽었고 말도 잘했다. 또 영화도 많이 보고 문화공연에도 관심들이 많았다. 처음으로 연극이나 뮤지컬도 보고, 책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 '마이네리그',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박민규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김영하의 '퀴즈쇼' 등을 읽으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어린하사가 아니었다. 책을 통해서 생긴 궁금증 때문에 대학에도 도전했다. 문학이 궁금해서 국어국문학과도 다녀왔고, 심리가 궁금해서 상담심리학과에도 도전해봤다. 둘 다 졸업은 못하고 그만뒀다. 중도 포기지만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책은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단지 똑똑해지고 싶어서 시작했던 독서가 지금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해주었다. 스무 살 때의 꿈이었던 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후회나 미련이 남지는 않는다.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두 개의 대학을 다녀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닌다. 책을 읽는 행위, 즉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공군의 한사람으로써 현재 직무에 만족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들과 다른 하나 밖에 없는 나라는 사람이 되도록 해준 힘이 독서였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중국의 대문호 왕망의 "나는 학생이다"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 조금씩만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6전비 군수전대 분석훈련과 중사 김경용



“ 커다란 항아리에 먼저 담아야 할 것 ”



1

어느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던 한 강사가 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보도록 하죠.”



2



그리고는 이내 주먹만한 큰 돌을 하나씩 항아리 속으로 옮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강사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에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 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득 찼습니다.”

3

그러자 그 강사는 조그만 자갈 부스러기를 한 움큼 꺼내어 항아리에 집어넣고 흔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 사이로 조그만 자갈을 가득 채운 후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미 가득 찬 항아리라고 생각했는데, 항아리의 빈틈으로 자갈 부스러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4



그러자 강사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꺼내어 주먹만 한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운 뒤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학생들은 “아니요,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5

조용해진 강의실 안에서 강사는 학생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가장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거꾸로 처음부터 모래를 가득 채웠다면 자갈이나 주먹만 한 돌을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학생들은 조용히 강사의 말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이 실험은 만약 가장 큰 돌을 항아리에 먼저 넣지 않는다면 그 큰 돌은 영원히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돌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을 가장 먼저 항아리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6

글 · 사진제공
이미도
(외화번역가,
〈똑똑한 식스팩〉
등 지음)



똑
똑한
식스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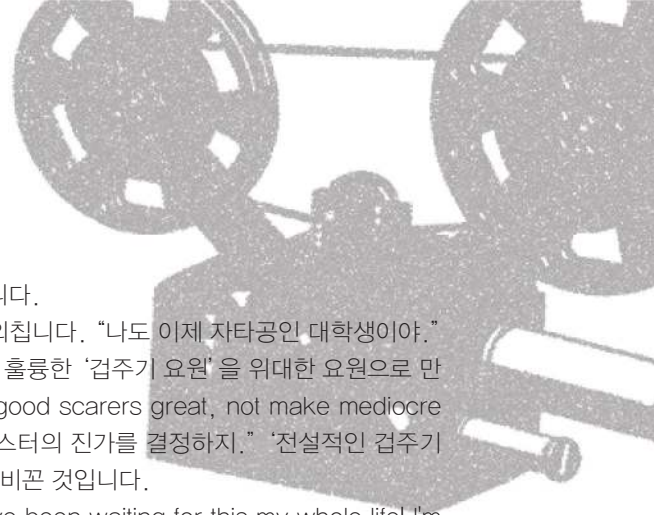
Hollywood English

몬스터 대학교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Pixar Animation Studios)의 애칭은 픽사(PIXAR)이지요. 픽셀(Pixel)과 아트(Art)를 결합한 브랜드입니다. 기술과 예술, 과학과 인문학의 연결 혹은 결합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한데요, 애플에서 쫓겨난 직후인 1986년에 스티브 잡스가 세운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2006년엔 월트디즈니사가 74억 달러(약 8조원)를 들여 픽사를 인수 및 합병했고, 1995년에 내놓은 작품 〈토이 스토리〉를 필두로 지금까지 14편의 장편영화를 만들었지요. 픽사는 2013년 현재,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 83억 달러(약 9조원)를 벌어들였습니다.

픽사 본사는 캘리포니아 에머리빌(Emeryville)에 있고, 본사 인근에는 명문 UCLA 버클리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를 참고해 픽사가 탄생시킨 캠퍼스가 바로 14번째 영화인 〈몬스터 대학교 Monsters' University〉입니다. 픽사가 2001년에 만든 〈몬스터 주식회사〉의 프리퀄(prequel)인데요, 〈몬스터 주식회사〉보다 시대적 배경이 앞선다는 뜻이지요.

세계 최고의 창조집단 중 하나로 꼽히는 픽사의 새 영화 〈몬스터 대학교〉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먼저 광고 문구를 통해 영화의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School Never Looked This Scary!" '학교가 이렇게 무섭게 보였던 적은 없다' 이군요. 엄청나게 무서운 대학교인가 봅니다. 궁금증을 훨씬 더 풀어줄 광고 문구도 있습니다. "Before they made it big they had to make the grade." 의역하자면, "꿈의 직장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스타가 되기 전 그들은 대학교에서 특별한 '스펙'을



쌓았다!” 쯤 되겠군요. 영화는 두 주인공의 새내기 대학생 시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개강하는 날, 외눈박이 괴물 마이크(빌리 크리스털)가 한껏 들떠 외칩니다. “나도 이제 자타공인 대학생이야.” 그런데 대형 전갈처럼 생긴 학장이 마이크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나의 임무는 훌륭한 ‘겁주기 요원’을 위대한 요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3류 요원을 2류 요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I’m here to make good scarers great, not make mediocre scarers less mediocre).” 학장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얼마나 무섭냐가 몬스터의 진가를 결정하지.” ‘전설적인 겁주기 몬스터’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이크건만 그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며 학장이 대차게 비꼰 것입니다.

“난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난 꼭 겁주기 요원이 될 거야(I’ve been waiting for this my whole life! I’m gonna be a scarer!).” 오기가 발동한 마이크는 이런 글귀를 가슴에 새깁니다. 해마다 열리는 ‘겁주기 대회’ 슬로건입니다. “네가 최고라는 걸 보여줘라(Prove you are the best).” 그런데 캠퍼스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 학생인 털복숭이 제임스 P. 설리번(존 굿맨)이 룸메이트인 마이크를 이렇게 얕잡아봅니다. “You’re not even in the same league with me.” 의역하자면, ‘네가 3군 선수라면 난 메이저 선수야’라는 뜻이지요.

작가 앤디 앤드류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창조주가 우리의 가슴에 심어준 창의성을 잘못 사용하는 결과이다.” 마침내 두려움을 떨치고, 그만의 창의력을 발휘해 ‘겁주기 요원’이 되기로 결심한 마이크는 학장에게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집니다. “제가 우승하면 어찌려고 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자 학장은 더 세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의 운이 바닥나는 건 시간문제야(Your luck will run out eventually).” 과연 마이크의 운은 곧 바닥이 나고 말까요?

‘겁주기 대회’는 단체경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친구들을 모아 팀을 만듭니다. 그런데 모으고 보니 다 어중이떠중이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습니다. 마이크의 팀이 연승가도를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진격할 것만 같던 팀이 결승전을 목전에 두고 자중지란을 일으킵니다. “개나 소나 다 겁주기의 전설이 될 순 없는 거잖아.” 무참하게 패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원의 내용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가려둡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결승전에 임할게 될지는 그들의 대사를 통해 소개해 보고 싶군요.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직장인 ‘몬스터 주식회사’의 인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마이크가 팀원들에게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들 인재들은 정해진 스펙이 따로 없어. 모두 각자 다르다는 게 장점이야. 그러니 누구도 너희를 알아보거나 차별하지 못하게 해.”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 이것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할 때 만든 슬로건이지요. 저는 ‘Think different’의 핵심을 다른 두 단어가 ‘What if?’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는 뜻이지만, “이래보면 어떨까?” 혹은 “저래보면 어떨까?” 하고 궁금해 하며 질문하는 태도 말이지요. 그런 질문을 통해 얻는 아이디어가 바로 ‘Think different’의 핵심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이크의 팀이 결승전에 임하여 발휘하는 장점이란 ‘다르게 생각하기 스펙’인 걸까요? 그것 또한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AF**

Monsters' University



글
홍국화
월간 세씨
디지털 기자



사진
임익순
브랜드(PONY,
소망화장품)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뜨거운 여름은 갔지만, 장병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는 가장 뜨거운! 감자 트렌드만 모아봤습니다.

1. 명품 로고를 패러디한 페이크 로고 아이템 대유행!

요즘 길거리에선 이런 '페이크 브랜드'가 대세입니다. 어라, 에르메스(HERMES)인 줄 알았는데 호미즈(HOMIES)고 구찌(GUCCI)인 줄 알았는데 부찌(BUCCI)네요. 이건 '페이크 패션'이라고 해서 명품 로고를 모티프로 위트 있게 표현한 다른 디자이너 상표입니다. 무한도전에서 길이 쓰고 나왔던 모자도 프라다 대신 프라우드(PROUD)가 써 있던 터라 순식간에 검색어를 장악하더라고요. 가격대도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 명품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명품을 좋아하는 패셔니스타들에게 단골 아이템이 되었어요. 이번 휴가엔 짧은 머리로 멋진 캡으로 가리고, 티셔츠 한 장으로도 멋낼 수 있으니 페이크 아이템은 어떨까요? 아 마, '살아있네!'란 소리 들으실걸요?

자, 그럼 어떤 브랜드로 검색해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스테레오 바이널즈(STEREO VINYS COLLECTION)

프라다를 모티프로 한 '프라우드' 캡. 온라인 슝무신사닷컴, 29CM, 힙합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에스에스유알(SSUR)

곰데가르송의 로고를 패러디한 '곰데

스 펍다운', 샤넬을 패러디한 '채널'은 뉴욕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루슬란캐러블런의 라벨인데요, 국내에 미리 수입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많아요!



모넛(MONOT)

샤넬 로고를 위트 있게 그린 모넛(MONOT)의 티셔츠는 가격도 저렴하죠! 1만9천원, 모넛(www.mono-t.co.kr)



2. 지갑 잊어버릴 걱정 뚝, 목에 거는 카드홀더

휴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지갑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클러치를 어깨에 끼고 다니기도 영 편한 게 아니죠. 필요한 카드와 약간의 지폐만 넣어 다닐 수 있는 카드 홀더는 어떠세요? 처음엔 '사원증' 같아 보여 별로더니, 디자인과 소재가 다양해져서 요즘 가장 인기있는 액세서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저도 지갑을 몇 번 잃어버린 터라 목에 걸고 나가봤더니 얼마나 편한지! 버스에 타서 센서에 딱~ 갇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요!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한 카드 홀더를 소개해볼게요!



①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PVC 카드홀더. 2만원대, 페이퍼케이스(www.papercase.me)

② 보더들의 라이딩룩에서 영감을 받은 알파벳 레터링 카드홀더. 1만5천원, 미스터페페(www.bundt.co.kr)

③ 동물 패턴을 카모플라주로 응용한 재미있는 프린트 카드홀더. 1만9천원, 더스토리(www.thestori.com)

④ 빛에 따라 반짝이는 홀로그램 에나멜 카드 홀더. 2만원대, 페이퍼 케이스(www.papercase.me)

⑤ 뒤쪽엔 9개의 구멍이 나 있어 빈티지한 매력을 더한 기본 가죽 카드홀더. 1만9천원, 포쉬크래프트

3. 올가을 유행 컬러를 입은 스니커즈!

‘오빠, 이 색 나한테 어울려?’ 갑자기 여자친구와 쇼핑을 하는 중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조건 예쁘다고 하지도 마시고, 떨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와인이나 주황, 진한 녹색이 유행일 테니까 이걸 어때?’라고요. 올가을 디자이너들은 회색, 와인색, 진한 그린색을 꼽았는데요, 브랜드 포니(PONY)에서 출시한 신상 스니커즈를 보니 이 대표색이 잘 어우러져 있어 커플 운동화로 그만일 것 같네요. (속닥속닥~6cm 키높이 효과도 있어요!)



포니의 스톰프(STOMP) 라인 스니커즈. 전국 스포리스 매장에서 구입 가능.

4. 싸이가 추천한다! 개기름 안녕~

사상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는 이 뜨거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장병 여러분! 평소 훈련 중에 땀과 기름으로 얼굴이 얼룩져 답답하시죠. 이 악명 높은 개기름을 얼굴에 오래 방치할 경우 모공이 넓어져 피부 결이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휴가 나가실 땐, ‘기름 잡는’ 화장품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꽃을 든 남자와 싸이가 함께 만든 화장품 라인,〈에너지 팩토리, 맨즈 오일 스태프〉입니다. 과잉 분비되는 피지를 관리해주는 제품이죠.



(순서대로)

오일스탑클렌징폼 낮동안 번들거린 기름으로 얼룩진 피부 위 노폐물을 씻어낸다. 120ml, 1만2천원

오일스탑 토너, 실크 터치 플루이드 과잉 피지가 분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유분과 수분을 맞추는 스킨, 로션. 모두 145ml, 1만9천원

오일스탑 세뱀 오프 젤 특히 피지가 많이 분출되는 부위에 발라주면 과잉 분출을 막아주는 집중 스팟 젤. 20ml, 1만원. **AF**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행복한 대한민국

건군 제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일 자 : 2013. 10. 1(화)

장 소 : 기 념 식 : 서울공항(성남)

시가행진 : 송례문 → 시청 → 광화문사거리

I Believe

주요행사일정

식전행사_ 09:00 ~ 09:55

(취타대, 국군의장대 시범, 전통무예, 축하공연, 군가합창)

기 념 식_ 10:00 ~ 10:40

(국민의례, 열병, 훈 표창수여, 기념사)

분 열_ 10:40 ~ 12:00

(집단강하, 고공강하, 태권도, 도보/기계화부대 분열, Air show 등)

시가행진_ 16:00 ~ 17:00

(송례문 → 시청 → 광화문사거리)

※참관문의: 031-759-6531

행사홍보간 사전 신청 및 승인자 외에는
당일 행사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건군 제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단

www.rokafd65.or.kr

당신의 용기에 안심을 더+ 합니다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신고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분상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비밀보장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변보호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포상

보상 · 포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최고 20억까지
보상금 지급)

부패·공약침해신고
보호보상 상담

1398
알 · 상 · 고 · 받

정부민원대표전화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4기 국민조종사 선발

선발인원 : 4명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013. 10. 1. 기준)

신청기간 : 2013. 9. 15. 까지

비행탑승 : 2013. 10. 25.(금) / 청주공항

탑승기종 : T-50, KT-1 등 국산항공기

참가신청 : 「대한민국 공군」 홈페이지 참고

문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전화) 042-552-6931

02-506-6931

e-메일) citizenpilot@airforce.mil.kr

[역대 국민조종사]

1기(2007): 문남곤(교사), 윤창섭(농업), 조성욱(교수), 최윤정(회사원)

3기(2011): 박지선(회사원), 김윤주(공무원), 정지은(대학생), 박정득(교사)

2기(2009): 허택기(공무원), 계동혁(기자), 송영기(경찰), 김민정(사업), 황희연(대학생), 윤동빈(대학생)



2013 기상사진 공모전

공모 주제 : 기상현상과 관련된 사진작품

공모 기간 : 9월 23일(월) ~ 10월 31일(목)

공모 대상 : 전 국민

출 품 수 : 1인당 5점 이내

심사 발표 : 11월 27일(수) 이후

공모 형태

- 흑백 또는 컬러 인화사진 (8×12인치)
- 원본필름 또는 디지털파일 (가로 2000pix 이상, jpg)
- ※ 사진과 필름(또는 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공모방법

- 우편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28호
공군기상단 기상사진공모전 담당자 앞 (우 321-923)
- 인트라넷 : nasj22@af.mil (인트라넷 이용불가 시 CD 제출)
- 작품제목(설명), 촬영 일시/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 공군참모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 우 수 2명 - 공군참모총장상 및 상금 10만원
- 장 려 2명 - 공군참모총장상 및 상금 5만원
- 입 선 4명 - 공군기상단장상 및 기념품

유의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기상단에 귀속됨
- 타 공모전 입상작 및 조작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됨
- ※ 전화문의 : 군)920-7133~4 / 일반) 042-552-7133~4





글
대령 강성구
(공군본부
공보과장)



사진출처
DAUM 책

책마을

이 글을 쓰고 있는 8월 중순의 계룡대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푸르름의 극치입니다. 수기(水氣)를 한껏 끌어 올려 끝단의 잎사귀까지 탄력을 유지시키는 나무들의 생명력은 매년 보면서도 늘 놀랍습니다. 가을에 잎 떨어뜨려 가지만 남기고, 죽은 듯 겨울을 냈던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성한 잎을 다시 틔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에는 생명을 살려내고 가을에는 거두고 죽이는 단조로운 자연의 반복 작용은 우리들에게 생명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또 순환되게 디자인되었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생로병사의 커다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만 젊은 시절에는 거의 죽음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한여름의 나뭇잎처럼 심장으로 부터 힘차게 돌려지는 혈액이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정지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장년에 접어들어 성인병이 생기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현명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준비도 합니다.

요즘 쉼 지구적 재난이나 종말을 주제로 많은 영화나 소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이제 장년의 나이로 접어들기 때문에 인류의 집단지성이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다른 생명체보다 늦게 불현듯 출현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생명체보다 앞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점차 커지고 주기도 짧아지는 것이 전조증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 28은 높은 치사율로 사람과 개에게 함께 전염되는 괴질이 창궐하는 가상의 도시 화양을 무대로 벌어지는 28일간의 기록입니다. 작가는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이 생매장을 당하던 충격의 겨울이 없었다면 이 소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물보호단체에서 찍은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약물 부족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돼지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돼지들의 울부짖음과 영상을 찍는 어느 여성의 울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절망의 지옥을 보는 듯한 충격을 받았었지요.

외부와의 연결이 폐쇄된 도시는 점차 황폐화되고 인간의 잔인한 단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모든 생명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의 가치도 함께 깨닫게 만듭니다. 이 소설은 화양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인수공통 전염병에 침범당한 것으로 구성했지만 화양은 지구촌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여러 종교에서 다양한 은유법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전쟁(불) 혹은 괴질(병)에 의해 훅 하고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소설은 극단의 상황에 던져진 인간군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가와 함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자기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읽고 나면 저절로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은군요. 세간에 화제가 되며 서점을 덮고 있는 소설 28의 명성보다는 스토리 전개나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9월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시원하게 읽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AF**



야구여신 **공서영**을 만나다
인터뷰 30페이지!



L

Letters to the editor



안재운 전북 고창군 월간 「공군」은 '추억'이다. 청춘의 피가 끓던 시절에 공군으로 근무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담벼락 코너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전역한 예비역들의 현재 생활상은 어떤지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대 서울 마포구 월간 「공군」은 '종합선물세트'다. 어린시절 총 천 연색 과자들이 콕콕 담겨진 선물상자처럼 여러 분야의 기사들이 기분 좋게 가득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문화유산답사기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보라매 공원이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던 의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늘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서연석 강원 강릉시 월간 「공군」은 '단비'다. 매일 가뭄과 같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지친 장병들에게 단비같은 생명력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Air supply '간첩 영화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고민'을 가장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월간 공군의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공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보람 강원 철원군 월간 「공군」은 '희망'이다. 접어가던 꿈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지칠 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내이름은 KF-X 빨리 날고 싶다'를 가장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KF-X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본군사훈련단에 대해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우 충남 계룡시 월간 「공군」은 '수다'다. 모든 기사들이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살갑게 다가오며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는 단연 KF-X 특집 기획이 압권이었습니다. KF-X 사업에 대해 눈에 보기 쉽고 명확하게 해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지 내에 있는 동·식물에 대한 기획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TV특집
68면 발행

2013년 9월호
VOL. 423

08 기획특집

On Air force
— 공군 텔레비전

30 인터뷰
야구아나운서 공서영

34 포토스케치 Red Flag Alaska
44 공군문화유산 답사기 대정초등학교 & 강병대교회

52 담벼락 독서
64 책마음 28